

## 이번 학기 총학을 돌아본다

제39대 총학생회(회장=장형주·통계 4, 이하 총학)는 학생들의 편의를 가장 중점을 두고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학생회를 만들겠다는 모토를 갖고 출범했다. △근거 없는 등록금 인상반대 △수도권지역 셔틀버스 운행 △동국인만을 위한 시네마데이 △자매교류대학 탐방 프로그램 신설 등 학생들의 복지위주의 공약들을 내세웠던 총학의 상반기 활동을 되돌아본다.

긍정적인 평가를 얻기도 했다. 강의환경개선과 시설개선에서도 앞장섰다. 학사운영실 기능과 민원처리기능이 통합된 One-Stop 민원실을 제안해 지난 4월 학생서비스팀 내부공사에 적극 반영됐다. 매 학기 초 만해관 및 중앙도서관 공용사무함 신청을 위해 이른 새벽부터 기다리는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신청제를 도입, 다음 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장애인 학생 및 가계관련 학

하지만 1학기 활동에는 아쉬운 점도 남았다. 총학이 진행한 올해 새내기세로베움터에는 11개 중 4개의 단과대만 참여했다. 또한 지난 4일 팔정도에서 열린 '학제개편안 자유토론회'와 지난 11일 전체 학생대표자 회의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기회에서 총학과 직접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랐으나 준비된 방안이 아니거나 주제와 관련되지 않은 총학 활동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하기 힘들었다"는 입장이 있었다. 이처럼 학생대표기구로서 학생들의 화합을 이끄는 데에서는 부족했다는 평가다.

도 적지 않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앞서는 총학은 바람직하지만, 무엇보다 학생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단과대 간의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총학의 모습도 보여야 할 것이다.

김나리 기자  
vik126@dongguk.edu



▲ 지난 3월 등록금 원탁회의



▲ 중간고사 기간 중 아식행사



▲ 대동제 '웃찾사+개콘 합동 콘서트'

### 학생 편의 · 문화사업에 큰 비중 실현공약 제시에는 거품 빼야 단과대 간 화합은 과제로 남아

총학을 비롯한 학생대표자들은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등록금 인상에 대해 학교측과 협의해 왔다. 수차례 대학 행정 집행부와 실무진과의 면담을 통해 인상률 중 1.5% 하향조정이라는 결과를 냈다. 1.5% 가운데 0.5%는 2학기 개강과 동시에 T-money카드 기능이 통합된 신규학생증을 무료 발급하면서 T-money로 충전해 재학생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나머지 1%는 교육환경 및 학생복지 개선사업으로 집행한다.

학생을 위한 장학시설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이번학기부터 지원된다.

△수도권지역 셔틀버스 운행 △강원도 낙산 소재 낙산학사의 개보수 △실시간 정보전달을 위한 LCD 또는 PDP화면 설치 등은 "예산에 비해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학교 측의 지원을 얻지 못해 무산됐다.

총학은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을지, 우선 학생증이 바뀌는 동시에 학생증과 연계한 금융기관이 바뀐다. 따라서 ATM기를 카드 삽입형에서 인식형으로 교체하면서 학내 곳곳에 추가 설치하고, 학생회관 내 신한은행 ATM기의 운용시간을 연장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9월에는 취업박람회를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김복주·통계4)와 함께 장충체육관에서 대규모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총학은 여러 문화 사업도 진행했다. 그 일환으로 '동국인만을 위한 시네마데이'를 추진했다. 오는 23일 '캐리비안의 해적-세상의 끝에서' 상영을 시작으로 올해 총 6회의 시네마 데이를 지정해 시사회를 갖는다. 또한 지난 15일부터 열린 대동제는 학생들의 공연과 행사가 지난해보다 비교적 많이 진행된 점에서



"두더지 잡아라!" ... 대동제가 열린 지난 15일부터 3일간 동아리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 행사가 열렸다. 사진은 경찰행정학과가 진행한 '물두더지' 게임을 즐기는 학생들의 모습. 김나리 기자 vik126@dongguk.edu

### 국내 최초 불교학 국제영문학술지 발간



발간했다. 이 학술지는 한국불교를 소개하는 최초의 영문학술지이자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이뤄졌던 한국불교, 한국불교학의 소개에서 벗어나 보다 불교학의 세계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틀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학술지는 총 2개의 section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창간호에는 section1에 한국 불교 전체를 사상이나 역사적으로 개괄할 수 있는 국내 논문 4편이 담겨있고 section2에 불교생태학과 관련된 논문이 실렸다.

학술지는 전체 1,000부가 발간돼 700부는 해외유수대학도서관과 불교학을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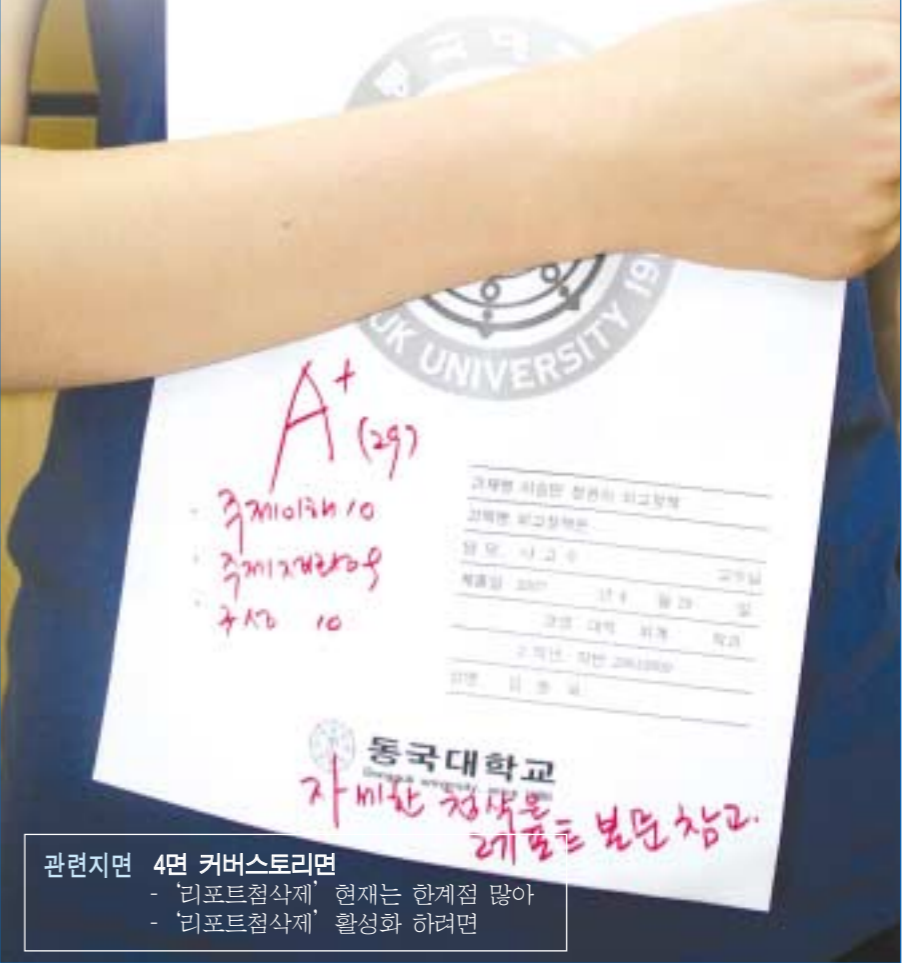
공하는 세계적 석학들에게 배포되고, 300부는 국내 도서관과 불교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배포된다.

학술지는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발간될 예정이며, 앞으로 발간될 학술지의 section2에는 응용불교, 불교철학, 불교종교학 등 보다 다양한 주제로 실질적으로 학제 간 연구가 될 수 있는 논문을 게재할 계획이다.

불교학연구단의 배상환 연구교수는 "한국불교를 개괄할 수 있는 논문들을 선별하여 실어나갈 것이다"라며 "이 학술지가 미래가 돼 전 세계적으로 한국 불교에 대한 소통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커버스토리

## 리포트, 되돌려받을 수 있나요?



관련지면 4면 커버스토리면  
- 리포트점삭제 현재는 한계점 많아  
- 리포트점삭제 활성화 하려면  
부만이 트랙제를 시행하게 된다.

## 학과편제 및 정원 조정안 이번주 내 최종 확정

지난달 20일 각 단과대에 통보된 이후 학내의 '뜨거운 감자'였던 학과편제 및 정원조정안이 이번 주 안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당초의 학과편제 및 정원조정안은 △특어특문학과와 북한학과의 폐지 △불교대, 문과대, 사과대, 공과대, 나노정보대학 5개 단과대학에 대한 110명 정원 감축 △인접학문 간의 협력을 위한 트랙제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학과 측은 지난 2일부터 총장, 학사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학제개편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8개 단과대 교수들, 총학생회 및 각 단과대 학생대표들과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 14일까지 확정안을 내용을 계획이 었지만 부분적으로 수정한 2차 시안을 갖고 학장 및 주임교수들과 세부 내용에 대해 재논의를 하게 되면서 일정이 지연되었다.

이번 학과편제 및 정원조정안 내용 중 특어특문학과와 북한학과의 폐지문제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막판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과 측은 이번 학제개편안의 조정 작업을 마무리 하고 있으며, 이번 주 교무위원회의를 거쳐 최종확정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선담은 기자  
ssundam@dongguk.edu

### 상록원 구조개선 방중 시행

여름방학 중 시행될 상록원 구조개선과 관련해 매장 운영형태와 업종이 지난 14일 열린 생활협동조합(이사장직무대행=박상진·생명화학공과, 이하 생협) 임시 이사회에서 결정되었다.

1층에 생협 직영매장으로 종합분식점이 운영되고 임대매장으로 패스트푸드점, 롤·파스타 전문점, 베이커리·아이스크림 전문점이 운영된다. 2층 학생식당은 생협 직영으로 푸드코트형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며, 3층 교직원식당은 임대매장이 한식, 중식, 일식 메뉴를 제공한다.

공사시행을 맡은 캠퍼스기획단(단장=김홍일·건축공과)은 오늘(21일)부터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작업을 6월 초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업체 선정 후 오는 6월 20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8월 26일 완공하게 된다. 생협은 완공 후 일주일가량 시범운영을 진행한 뒤 2학기 개강일인 9월 3일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 '동국CS광장' 오늘 오픈

오늘(21일) CS경영팀(팀장=박서진)이 '동국CS광장'(http://cs.dongguk.edu)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오픈한다. '동국CS광장'은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총장과의 대화'의 의미를 넓혀 '열린 총장실'의 개념으로 학내 구성원들의 제시하는 정책을 자유롭게 들여보고 실제 행정 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동국CS광장'은 △'총장과의 대화'를 비롯해 △총장의 스케줄 및 현장 스케치 △정책 제안하기 △민원처리 △칭찬합시다 △완소동국 '우리학교 자랑하기' △CS레터 등 다양한 코너로 구성됐다.

### 알림

이번 제1445호가 2007학년도 1학기 중강호입니다. 보내주시 신원애 김사드 리머 제1446호는 9월 3일자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 동대신문사 수습기자 모집

응시자격 1학년 재학생  
원서접수 5월 30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  
적용일시 5월 30일 수요일 오후 6시  
원서내부 SC제일은행 옆 본관 1층 동대신문사 사무실  
http://www.dgupress.com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www.dgupress.com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TEL: (02) 2260-3491~2 E-mail: dgupress@dongguk.edu

채택 소정의 활동비, 장학금 지원  
교내 국제교육원 주관 여학특강 방중 무료 수강, 언론 교육기관 무료 수강  
※ 보호자 월 외로보험료 5만원이하인 학생의 경우 등록금 전액 감면

산학협력단장 인터뷰

“연구진흥으로 학교발전에 엔진 역할”



박형우(전자공학) 단장

- 연구처 업무가 단과대로 이전되었는데 역할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 산학협력단은 연구진흥 정책 수립, 각종 국가 R&D사업 수주, 연구비 유치, 기술이전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은 연구활성화, 창의교육, 신산업화, 기술료수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연결고리 확립이다. 현재 학교 운영비 중 등록금이 약 80%의 비율을 차지해 매년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연구진흥은 연구비 수주 증가로 이어져 대학원 학생들의 재정 지원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연구 성과의 논문화, 지적재산화, 산업화를 통해 교육 내실화 및 학교 수익 증대의 토대가 되어 학교 운영에 보탬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진흥을 위한 계획은.  
= 최근 국가기관에서 연구 사업에 거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 200여개와 출연연구소, 민간기업 등과 경쟁 해야한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요구를 파악

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전략과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연구기관에 대해 교직원연구관과 일반연구기관을 만들고 각각 학교와 단과대학이 나누어 육성지원하게 될 것이다. 교직원연구관은 장기적인 계획 하에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일반연구기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과대학장의 책임 하에 운영할 예정이다.

- 교수들의 모임인 '기술분야별 연구회'를 신설 했는데.  
= 우리학교는 교수 개인의 연구들이 쌓여 학교의 전체 성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사업에는 총액 100억 원 정도의 대형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학문간 융합된 과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수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기술분야별 연구회'를 조직했다. 비슷한 학문의 교수들이 모여 연구회를 만들어 토론과 세미나를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서 연구회끼리 협력하게 될 것이다. 30개 연구회에 180여명의 교수들이 참여의사를 밝혀 많은 관심을 보였다. 매월 연구회의 회장도 임인 R&D 자문단회의를 열어 다양한 학문분야의 교수들이 서로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우리학교 교수의 이 연구회들은 연구진흥과 학교발전의 엔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윤재 기자  
yiyoonjae@dongguk.edu

국제화추진단장 인터뷰

“해외 교류협력 늘려 국제화 업그레이드”



김일중(국제통상학) 단장

- 국제화추진단의 역할과 앞으로의 노선은.  
= 국제교육원의 3개부서 체제에서 국제교류팀, 글로벌기획팀, 한국어교육센터, 외국어교육센터의 4개부서로 조직을 개편해 업무를 세분화하고 확대시켰다.  
= 외국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는데 중요 요소로 꼽는 기숙사 문제가 꼭 해결돼야 하며, 이들과 관련된 중요한 지표이다. 이에 따라 작년 말부터 국제화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킬 방안을 만들었다.  
우리학교 학생을 해외로 진출시키는 Out-bound과 해외인재를 우리학교에 유치하는 In-bound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단순 어학 공부 수준을 벗어나 실질적인 전공심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과 문화체험을 구성해 In-bound를 확대하고, 학내 외국어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것이다.

- 국제화추진단이 기획중인 사업들에 대해 설명한다면.  
= 지금까지는 아시아권과 주로 교류해 왔는데, 영어권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크다. 국제화추진단은 이번 주부터 국제교육컨퍼런

스에서 우리학교를 홍보하고, 여러 미국의 교류대학을 찾을 예정이다. 중국 북경대, 문화대, 대만 국립성공대 등과 복수학위제도도 준비 중이다. 이처럼 외국대학들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교환학생 수도 늘려나갈 것이다.  
In-bound, Out-bound를 확대하려면 우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 있는 외국교환학생들과 해외에 나갔던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해 현 상황을 보완해 나가겠다.

- 우리학교의 국제화를 위해 해결돼야 하는 점은.  
= 외국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는데 중요 요소로 꼽는 기숙사 문제가 꼭 해결돼야 하며, 이들과 관련된 중요한 지표이다. 이에 따라 작년 말부터 국제화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킬 방안을 만들었다.  
우리학교 학생을 해외로 진출시키는 Out-bound과 해외인재를 우리학교에 유치하는 In-bound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단순 어학 공부 수준을 벗어나 실질적인 전공심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과 문화체험을 구성해 In-bound를 확대하고, 학내 외국어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것이다.  
앞으로는 경쟁대상을 해외 유명 대학으로 잡아야 한다. Dongguk International Summer School과, 앞으로 설립할 잉글리시 카페 등은 학내에서 국제화의 감각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로써 명실상부한 국제학교로 발돋움 할 것이다.

이주현 기자  
niitake@dongguk.edu

경영관리실장 인터뷰

“구성원과 대화 통해 정책 결정할 것”



조인연(영어영문학) 실장

- 경영관리실의 역할은.  
= 기존의 총장비서실이 총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주로 했다면 경영관리실은 총장이 진행하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한다. 추진사업에 대해 처음 논의했던 부분과는 얼마나 다른지,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그 예이다. 말 그대로 대학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면 된다.

- CS경영이 대학사회에 최초로 도입하는 만큼 어려움도 많을 것이다.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가.  
= 대학사회에서는 CS경영이 아직 생소한 개념이다. 따라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현재의 CS경영팀은 이번 학기 안으로 안정화 될 것으로 보인다. 고객을 학생으로만 한정시키지 않고 교수님 비롯한 직원 개개인과 학부모든가 지 범위를 넓혀 서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이라는 고객관리경영을 도입해 나갈 것이다.  
직원들에게는 아직 대학내 CS

경영이라는 개념이 낯설어 거부감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적지 않다. 그러나 'CS마인드교육'을 시작으로 교육경영에 있어서 CS경영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는 방향으로 시행할 것이다. 또한 직원들의 의식이 먼저 개선되면 교수들 역시 "CS경영은 교육서비스"라는 개념으로 의식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108프로젝트의 실현구체화에 대해 아직까지 많은 구성원들의 우려가 있으며, 내용이 각 부서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108프로젝트는 앞으로 4년간의 발전방향 설정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의견수렴은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 부서와의 많은 회의를 통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앞으로 더욱 만들어 나갈 생각이며 이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번 학제개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간담회를 통해 많은 구성원들과 대화를 가졌듯이 앞으로도 대부분의 정책결정은 다양한 구성원과 의견을 나누는 뒤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모두가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나리 기자  
vik126@dongguk.edu

인전부터

억지충항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수계법회 참석하면 리포트가 면제인가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수계법회 참석하면 지각, 결석 봐주시나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교수님들의 무한 청정 자비 광명에, 진심없는 학생들에게는 의미없는 법회 참석.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학점관리, 출석관리.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아수라 동국 백작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 로 유학 온 교환학생입니다. 그런데 동국대 학생 이상합니다. 리포트를 쓰거나 발표할 때, 때로는 "세계화, 세계화"하면서 내 뒤에서는 "짱개, 짱개"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하지마세요. 동국인 나빠요.

미녀는 진상

○...나는 너무 예뻐, 난 참 섹시해. 미모는 나의 무기.  
화장도 나의 무기.  
화장실 세면대와 거울이 있는 곳은 나의 무대.  
나는 뷰티풀 걸.  
화장 고친 후지, 다 쓴 기름종이, 더러운 것들은 남들이 치워, 왜냐하면 나는 뷰티풀 걸.  
쓰레기 따윈 상관없어.  
청소 아주머니가 치워주는 걸.  
내 손은 파우더와 립스틱 바를 때만.  
왜냐하면 '난 소중하니까요.'  
화장실은 우리집.  
나의 전용 파우더 룸.  
알잖아. 나는 뷰티풀 걸.

오매불망

○...충전과 비충전의 길은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충전도 못하고 가는가.  
어느 봄 이른 오후에 차츰차츰 꺼져가는 핸드폰처럼  
충전이 다 됐어도 다시 돌아와 찾아가는 사람 보이질 않는구나.  
아아, 핸드폰이 꺼진 내가 당신 이 찾으며 올 날 기다리겠노라.

여성 전문직종 교육 실시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한 '2007년도 전문직종 교육훈련 시범사업'에 우리학교 여학생커리어개발센터(센터장=이심열·가정교육)의 '영화·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사운드 디자이너 과정'이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지식기반사회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망산업의 교육훈련을 강화해 여성 노동의 질을 제고하고, 전문 직종 분야의 여성 진출을 확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여학생커리어개발센터는 이번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올 한 해 5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여학생 25명을 선정해 오는 6월 25일부터 2개월간 40차수로 진행된다.

23일 '동국 시네마데이'

오는 23일 총학생회(회장=정형주·통계4)의 주최로 '동국인을 위한 시네마 데이'가 롯데시네마 에비뉴엘관에서 열린다. 이번에 지정된 영화는 '캐리비안의 해적: 세상의 끝에서'로, 상영시간은 오전 10시 40분, 오후 1시 50분, △5시 △8시 10분 △11시 20분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상영된다.  
신청은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9일부터 받고 있으며, 신청한 학생들 중 선착순으로 선별할 예정이다.  
이렇게 신청해 당첨된 학생은 영화 상영 전날인 내일(22일)에 학생회관 1층 총학생회실에서 수령하면 된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 우리학교 CS경영팀은 지난 18일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CS마인드 교육을 교무위원·팀장, 5급 직원, 6급 이하 직원 등 세 차례로 나누어 실시했다. 사진은 교무위원들과 팀장급 직원들이 경영컨설턴트의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이주현 기자 niitake@dongguk.edu

“두마리 토끼 잡기 힘들어요”

체육실 선수들 학업·운동 병행하도록 지원 필요

바늘 구멍 뚫기보다 힘들다는 취업의 문, 우리학교 체육실 학생들은 어떨까?  
체육실 학생들은 모두 체육교육과 소속으로, 지난 3년간 체육실의 취업률은 80%내외다. 축구부와 농구부는 졸업생 모두 프로팀과 실업팀 등으로 입단했으나, 야구부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지난 해는 7명 중 2명이, 올해 졸업자 5명 중 3명이 팀을 찾지 못했다.  
이에 대해 체육실 강은희 직원은 “야구 종목은 프로팀 이외에 실업팀이나 직장팀이 비교적 적어 취업률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로 야구팀의 좁은 문을 뚫을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학교 교과과정에 충실히 해 학생들의 소속에 따른 학문적 전문성을 높여야 하지 않을까.  
실제로 체육실에서 강의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수업을 들도록 권유하고 있지만 많은 체육실 학생들이 수업에 제대로 출석하지 못한다.  
축구부와 농구부의 경우 오후 내내 훈련에 임하기 때문에 오후 수업은 대부분 결석하게 된다. 또한 야구부는 학내에 연습할 공간이 없어 타 지역 야구장까지 버스로 이동해 훈련을 받기 때문에 강의의 들을 시간이 없다.  
야구부 주장 홍석무(체교4) 군은 “사범대 소속으로 교직이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훈련과 경기로 수업에 충실할 수 없기 때문에 교사로 진로를 정하기 힘들다”며 강의 듣는 데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축구부 김선일(체교3) 군은 “경기시즌이면 하루 종일 경기 준비를 하거나 지방 경기에 나가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업에 빠지기가 다반사”라며 “교양공부나 리포트 작성법 등 교수님이 아닌 일반 학생에게라도 학업적

도움을 받는 멘토 프로그램 등이 기획된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체육실은 경기나 훈련으로 빠지는 강의를 보충하기 위해 방학 중 ‘집중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체육실 이우용 부장은 “방학 중 열을 정도를 할애해 교과과정 그대로 강의를 진행하거나 계절 학기를 통해 대회나 훈련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체육부 학생들은 밤낮 없이 훈련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모르는 몇배의 노력을 한다”며 학생들의 격려와 응원을 부탁했다.  
선수활동과 학업의 1인 2역을 해내야 하는 체육실 학생들의 고충은 클 수밖에 없다. 그들의 탐과 노력의 대가는 우리 구성원들의 관심과 응원이 되어야 할 않을까.  
이송이 기자  
thispaper@dongguk.edu

동약로에서

너희들의 축제

‘웃찾사+개콘 연합콘서트’ 열린 지난 15일, 공연을 보러온 학생들이 만해광장을 가득 메웠다. 언제부터인가 대중제에는 연예인들의 공연이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로 자리 잡았다.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진 학생들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직접 준비하고 참여하는 축제보다 단순히 보고 즐기는 축제를 선호하는 학생들의 성향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학과, 동아리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행사도 주춤, 나아가면 가요제, 먹거리 장터 등 점점 한 정패가는 경향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외부업체가 들어와 부스를 마련하고 시음행사, 무료 경품행사를 진행하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다. 공차기, 닥트던지기 등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기업에서 마련한 홍보용 경품이 주어진다. 이러한 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공통된 의견은

“무료로 경품 받는 것은 좋지만 학생들 스스로 축제를 다양하게 꾸리지 못해 아쉽다”는 것이다. 김태민(경영대1) 양은 “판매를 강요하지는 않지만 우리들이 만들어가야 할 축제를 기업에서 진행하는 홍보행사에 의존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내가 직접 준비하고 참여하는 축제보다 단순히 보고 즐기는 축제를 선호하는 학생들의 성향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학과, 동아리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행사도 주춤, 나아가면 가요제, 먹거리 장터 등 점점 한 정패가는 경향도 보인다.  
대중제에 대한 졸업생들의 추억도 함께 들어보았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5월은 추억과 낭만을 노래하는, 그야말로 ‘축제’의 달이었다. 취업에 대한 부담도 지금보다 덜했고 구성원 전체가 함께 즐기는 분위기였다. 연예인공연은 대부분 백상응원전에서 볼 수 있는 것이었지만, 학과별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참여하며 하나로 뭉칠 수 있었다. 또 팔정도 주

변 소원 줄 쪼기, 화과티셔츠 경연대회 등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도 이루어졌다.  
요즘은 사회적 분위기와 대학가의 모습을 보면 개인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없는 일에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때문에 축제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며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시대가 변하고 학생들의 관심사가 변해온 만큼 대학의 축제 문화도 달라졌다. 아쉬운 것은 우리들의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축제문화를 다양화 하려는 우리들의 노력과 열정이 퇴색되어 간다는 것이다.



최미혜 기자  
lisonaral@dongguk.edu



“A-YO 붓다!” ... 지난 14일 정각원(원장=박종호·선학) 주최로 CBM(Contemporary Buddhist Music) 페스티벌이 민해광장에서 열렸다. 불교문화공연의 새로운 시도를 한 이번 축제는 MC 스나피퍼와 데프콘, SPC 등의 공연으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중구민들도 참여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문서영 기자 syoob@dongguk.edu

# 세계로 뻗어 나가는 동국·DISS 개설

## 글로벌 캠퍼스를 향한 첫걸음 ... 활성화 위한 방안 모색 필요

국제화추진단(단장=김일중·국제통상학) 내 글로벌 기획팀에서 Dongguk International Summer School을 신설했다. 이는 지난 '108프로젝트' 국제화 Cultur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리 학교가 타 대학들에 비해 다소 취약한 국제화 지표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우리학교의 지난 2006 중앙일보 전국대학평가 국제화 부문 순위는 33위로 10위권 진입이 목표이다.

### 세계 석학을 캠퍼스에서

모든 강의는 영어로 진행되며 학생들은 서머 스쿨을 통해 캠퍼스 내에서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미국 및 중국의 우수한 석학들의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게 된다.

개설 분야는 크게 국제경영, 국제관계, 미국경제를 다룬 Global Economy와 미국과 중국 문화를 다룬 Westem&Asian Culture로 학생의 수요와 우리학교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가를 고려해서 선정했다. 이공계쪽은 논의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수요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제외되었다. 우리학교는 현재 MBA(경영전문대학원)를 진행 중이며, 문화·예술·인문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 실제 신청인원 예상보다 저조

Global Economy 분야에는 △Developing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Plans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USA in World Economy, Westem&Asian Culture분야에서는 △Gender & Popular Culture in America △Modern Chinese Culture and Thoughts의 총 5개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강좌별 3학점으로 계절학기 이수과목으로 최대 9학점까지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일부 학과 소속 학생은 전공으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본래 총 10강좌가 개설되었으나 신청현황을 감안해서 5개 강좌로 축소운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개설 당시 예상 수강신청 인원은 약 200여명으로 최소한 100여명의 학생들을 목표로 했다. 현재는 지난 18일까지 약 60여명의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한 상태이다. 또 한 강좌당 수강신청 인원은 20명 이상이다. 지난 16일도 온라인 접수는 마감했으며, 다음 달 13일까지 이메일 접수와 방문접수를 받는다.

김일중 국제화추진단장은 "첫 시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번 결과를 지켜보고 설문조사를 통한 피드백으로 내년부터는 더욱 원활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상보다 학생들의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주로 수강료와 영어강의에 대한 부담인 것으로 분석된다. 강좌당 수강료는 학점 당 10만원씩 30만원으로 상당 수의 학생들이 여기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타 대학의 수강료가 강좌당 40만원 이상이고, 학점당 8만원인 우리학교 계절학기 수강료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 높지 않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직접 외국에 나가 공부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상당히 비싼 학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 영어 강의에 대한 두려움 없애야

뿐만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스스로 영어의 필요성에 대해 자각하고 영어강의에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 요구된다. 영어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강의에서 PPT 등 강의자료가 최대한 활용된다. 여러 학교에서 시행중인 1:1 서비스 'TA(Teacher's Assistant)' 제도는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해 추후에 도입할 예정이다.

서머스쿨을 개설한 대다수의 대학들은 정규 강의 이외에도 문화 행사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다. 우리학교도 CEO특강과 문화행사로 내실을 더했다. CEO특강은 현장전문가의 목소리를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며, 문화행사는 우리학교 경주 캠퍼스와 울산 포스코 방문을 계획중이다.

한편 지난해 말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프로그램 기획단계에 들어갔지만 교원 초빙 문제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올해 4월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단기간 내에 추진하면서 시기가 늦어져 애초 의도처럼 외국 학생들을 우리학교로 끌어들이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 내년에는 올해 말부터 준비를 시작해 3월 이전에 모든 프로그램 준비를 마무리지를 계획이다.

또한 서머스쿨의 기획은 학사지원본부에서 시작했으나 지난 4월 조직개편에 따라 국제화추진단으로 업무 담당 부서가 변경됐다. 기획한 부서와 실행한 부서가 달라서 진행상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부족한 인력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현재 단장 1명, 팀장 1명, 직원 3명 등 총 5명이 거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담당 부서에 배 이상의 인원이 동원된 타 대학에 비교해 볼 때 적정 수준의 인력보충으로 보다 원활한 업무 진행을 꾀해야 한다.

외국인을 위한 기숙사가 없다는 점 역시 우리학교가 보완해나가야 할 약점이다. 이를 위해 2010년까지 완공될 기숙사에 100명 이상의 외국인을 수용할 예정이며, 교직원과의 연계를 통한 홈스테이 'coop residence'를 계획 중이다.

이 외에도 서머스쿨만을 위한 단독 홈페이지는 다음 학기에 구축되고 외국인과의 1:1 교류를 위한 버디 프로그램은 수요를 파악한 뒤 검토할 예정이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교류 대학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대학에 홍보할 예정으로 이번 주에는 NAFTA에서 우리학교와 서머스쿨 홍보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 신문 광고와 이메일, 영문 브로슈어 홍보도 병행한다.

### 글로벌 캠퍼스로의 도약 기대

시행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에서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영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화와 국제화의 흐름에 발맞춰 동서양의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더불어 기본적인 인프라와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 In-bound·Out-bound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홍보와 피드백으로 '글로벌 캠퍼스'에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 대학생과 건강 ⑥ 우울증

### 대학생들의 마음의 감기인 우울증 적극적인 자세로 주위의 도움 구해야



청년기는 인생의 황금기이다. 부모의 보살핌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하고 미래를 설계함으로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기이다.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고 펼쳐볼 수 있기에, 특히 이 시기에 경험하는 대학생들은 흥미롭고 낭만적이라고 한다.

실제로는 대학생들이 자유와 낭만뿐만이 아니라 고민과 불안과 고민도 함께 안고 있다.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한 책임감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학업과 장래의 진로, 취업, 군 문제로 골치를 앓고, 새롭게 바뀐 환경과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고교시절에는 오직 대학 입학만을 위한 학업에만 매달려서 감정과 대인관계의 사회적 기술을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이 요구하는 변화를 원만하게 받아들이지 못하여 정신적인 균형감각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

특히 신입생들은 자기통제와 스스로의 선택에 미숙하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분방한 대학 생활이 때로는 즐거움보다 부담으로 느끼게 된다. 3~4학년 대학생들은 취업과 장래에 대한 불안으로 고통스러워한다. IMF 이후 취업난이 가중되었고 평생직장의 개념은 사라졌으며, 사회는 끊임없는 자기발전과 창조적 생각을 요구하고 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하는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역시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그리하여, 즐겁고 자유로워야 할 대학생들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으로 얼룩질 수가 있다. 또한, 취업이라는 실체적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다시금 혹독한 취업 전쟁에 시달리고, 심리적 중압감으로 괴로워하게 된다.

이런 스트레스들은 대학생들을 우울의 늪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우울'이란, 침울한 기분으로

비관적인 생각과 함께 슬픔, 낙심, 절망감을 느끼는 상태이다. 누구나 느끼는 희노애락과 같은 다양한 감정의 일부이다. 하지만, 가볍게 가라앉는 기분이 잠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최소 2주 이상 지속되며,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때 병적 상태로 '우울증'이라고 한다. 실제로 우울증 진단 시 최근의 친구, 가족들과 교류단절, 학업 실패 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잇따른 연예인들의 자살은 일반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들은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우울증을 앓았다고도 한다. 감기처럼 치유가 가능하지만, 이를 방치해두면 폐렴으로 번져가듯이, 우울도 가벼이 생각하고 자칫 내버려두면,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가 빚어진다. 우울증은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한국인의 질병 부담 2005년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한국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 질병 1순위가 우울증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대학생의 12%가 우울 증세를 보인다'는 대학병원의 조사결과도 있다.

우울 증세를 경험하는 많은 대학생들은 자신의 우울감을 인식하면서도 주변의 시선이나 정신과 상담에 대한 편견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도움받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또, 우울감을 혼자만의 문제로 인식하고 외부와 고립된 생활을 선택함으로써 결국에는 극단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이라고,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도움을 묻는 자신의 주변 어디에나 있다. 학교 내 보건소나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내어 문을 두드려야 한다. 대학생들의 성장통으로도 볼 수 있는 우울증은 지속적인 치료로 치유될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정신이 건강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건강한 대학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정인원  
동국대학교병원·한방병원  
신경정신과 교수

## 우리학교 논술 길라잡이 6. 논술고사 이렇게 준비하세요

- 글 쓰는 순서**
1. 동국대 통합논술, 이렇게 출제하고 평가한다(윤재용 교수)
  2. 인문계 모의 논술고사 해설 및 답안 분석(윤재용 교수)
  3. 자연계 모의 논술고사 해설 및 답안 분석(성정석 교수)
  4. 나는 논술고사 이렇게 준비했다(인문계 신입생)
  5. 나는 논술고사 이렇게 준비했다(자연계 신입생)
  6. 논술고사 이렇게 준비하세요(인문대건고 철학 교사 주영기)

### 1. 출제 특징

2008학년도 동국대 통합교과형 예시문항은 먼저 제시문 구성에 있어 통합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제되었다. 교과서 내용, 신문 기사, 교양 학술서, 대백

과사전, 그림, 문학 등 다양한 종류의 제시문으로 문제를 구성하여 통합교과형 논술 취지를 살리고 있다. 또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모두 단계별의 문항을 일부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출제 주제에 있어서도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접근 가능한 주제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수험생이 현실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현실 문제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제시문의 난이도는 어렵지 않은 수준이라 수험생 부담은 크지 않다. 답안 작성 분량은 200~300자 사이의 짧은 글쓰기, 500자 내의 글쓰기, 800자 내

의 글쓰기로 다양해졌다.

논제 요구사항도 기본적인 요약 및 제시문 이해 능력, 문제 제기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논리적 정당성 검토, 차이점 파악 능력, 조건적 논지 전개 및 논지 보강, 제시문 이해 능력 등으로 다양하다. 단순한 지식을 요구하기보다는 사고의 과정이나 사고 자체의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면을 측정의 중요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 2. 중요 측정 능력

동국대 통합교과형 논술고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측정 능력은 단순 암기 지식이 아닌 사고 능력에 있어서의 통합적 사고 능력과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 능력이다. 그리고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에서 학문 연구 활동을 하는 데 필수적인 텍스트 요약 능력과 이해 능력을 기본으로 요구하고 있다.

각 계열에 속하는 기본 교양적 내용을 알고 있는지도 측정 요소 중 하나이다. 인문 계열 학생이라 할지라도 자연 계열 관련 텍스트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다른 계열 관련 내용을 자기 계열 문제에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기존 스타일과는 다르게 통합적 성격을 강화시킨 것이다.

서로 다른 계열에 관련된 텍스트 내용을 이해하고 타 계열에 적용·응용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고 그 구체적인 논제 발문에서는 다양한 사고 능력과 사고 과정의 논리적 전개를 핵심적인 측정 능력으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해 제시문 내용의 통합과 사고의 통합 및 사고 과정의 논리성 여부가 2008학년도 예시 문항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동국대의 핵심 측정 능력이다.

### 3. 우수 답안을 위한 준비 방법

동국대에서 2008학년도 대학별 고사를 새롭게 준비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고득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 출제 특징과 중요 측정 능력에서 밝힌 내용들에 주목해 평소에도 하나씩 준비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제시문과 관련해서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각 교과서의 내용을 소홀히 다루지 말고 정규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정리를 해 두어야 한다. 특히 각 교과 내용 중 출제 가능한 주제인지를 생각해 보고 예상 주제를 정하여 예시 문항의 논제에 맞춰 자신의 답안을 작성한 뒤 주위 친구들과 서로 첨삭하듯이 의견을 교환하고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상호 검토해 주는 방식을 취한다면 별도의 준비 없이도 충분히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예상 주제를 정리한 다음 타 교과 내용과 연관성 여부를 검토하여 교과 내용 간 연결하기를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은 교과 내용에서 추출한 예상 주제와 관련이 깊은 현실 문제를 조사해 함께 생각을 전개해 보는 것이다.

논제에 맞는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논술 고사의 출발점이다. 논제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요구사항과 무관한 내용을 답안으로 작성하는 것은 수험생들이 자주 범하는 치명적 실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출제된 동국대 문제에서 논제만을 따로 모아 각 논제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검토하면서 논제 분석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시문 분석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파악해 낸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이 발표한 출제도와 해설을 통해 자신이 분석한 내용을 평가해 보거나 학교 선생님 또는 친구들과 함께 공동 스터디 형태로 반복적으로 분석하고 분석 결과가 맞는지 여부를 서로 확인

해 봐야 한다.

답안 작성에서는 다양한 분량의 글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짧은 분량일수록 핵심적 내용을 간결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핵심어나 주제어 등을 정확히 사용하여 문장을 작성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최대한 짧은 분량 속에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마치 심장을 질러 들어가듯이 기술해야 한다. 답안 길이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내용 구성 방법도 익혀 두어야 한다.

### 4. 논술 능력 향상을 위한 올바른 방법

정규 수업 시간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 통합교과형 논술의 기본 취지 중 하나가 바로 사회교육에 내몰린 논술 교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접했던 내용들을 논술 출제 주제로 활용하려고 한다. 지나치게 어려운 지식적 내용을 위해 학원을 찾는다면 잘못된 논술 준비가 된다. 정규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출제 가능한 주제를 예측해 보고 예상 논제를 만들어 자신의 생각을 자주 써 보는 것이 가장 훌륭한 준비 방법이다.

주영기  
인천대건고등학교 철학 교사



# '리포트 침식제' 현재는 학계감 많아

## 교수·학생의 입장과 학문의 특성 고려하지 못한 채 추진돼



### 교수, 과제 침식할 시간 부족

현재 많은 교수들은 리포트를 침식해서 돌려주는 데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한다. 수업, 연구, 행정업무 등을 맡다보니 리포트를 침식하는 데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많은 수업이 100명 이상이 될 경우 리포트 한 개를 보는데 5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총 500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리포트를 보는 데 고스란히 받쳐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하는 일인 만큼 효율적이어서야 하지만 이 점에 있어서도 논란이 된다.

김대영(산림자원학) 교수는 "학생들에게 내준 리포트는 수업 시간 중에 직접 발표를 시켜 틀린 부분을 지적하고 다시 설명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리포트 침식과 발표라는 2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학문특성 따라 침식의 중요성 달라

학문의 특성마다 리포트 침식필요의 중요성은 다르다. 인문·사회계열 학생은 논술형식의 과제가 많고 이공계열 학생은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는 과제가 많다.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자신의 서술한 내용에 대해 침식지도를 받게 되면 개요라든지 문장구조라든지 많은 도움이 된다. 공학계열 학생의 경우 제출한 과제에 대해 교수가 직접 풀이과정을 적어주는 것만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박형무(전자공학) 교수는 "문제 풀이과정을 적어주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학생들과 면담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학생들을 위해 더 낫다"고 말했다. 리포트를 침식해서 돌려주면 면담도 하면 금상첨화지만 둘 중 하나만 고르다면 면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 학생들, 성실한 참여 요구돼

때문에 과제를 돌려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되짚어보아야 한다. 학생들이 과제를 돌려받고자 하는 이유는 '내가 제출한 과제에서 어떠한 부분이 잘못됐는지', '자신이 이 점수를 받게 된 까닭은 무엇인지' 알고 싶기 때문이다. 과제돌려받기 운동 취지에 대해 대부분의 교수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다만 리포트 작성 시 학생들도 노력해야 할 점이 많다고 강조한다.

요즘 학생들이 리포트를 제출할 때 인터넷에서 복사해 오는 경우가 있다. 김상일(국어국문학) 교수는 "리포트를 한 수업에서 받아볼 때마다 4~5명의 리포트의 내용이 엇비슷하거나 같다"며 "교수가 리포트를 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일으키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분량만 많이 해오거나 인터넷에서 복사해오는 등 학생들의 정성이 빠진 리포트를 받은 교수가 이것을 정성껏 평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그런데 학생들의 과제를 침식해줘도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강사가 있다. 학생들에게 내 준 독후감을 받아 읽어보니 인터넷에서 베껴온 흔적이 역력해서 당사자에게 점수를 주지 않았다. 그러자 '○○교수 점수 잘 안 준다'는 식의 소문이 퍼져 지난해 2학기 때는 해당 강사의 수업이 수강신청인원 부족으로 폐강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수록 학생들의 신뢰는 떨어지고 그들의 요구를 교수들이 들어주기 어려워질 것이다.

자신의 과제와 관련된 의문점에 대해 교수들은 최대한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다만, 학교의 교육환경과 많은 업무량에 따라 교수가 침식지도를 해주는 정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 학생들은 무작정 '과제를 돌려 달라'는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점차 나오는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요구해서 지금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이윤재 기자  
yiyoonjae@dongguk.edu



"너 이번 과제 점수 뭐야?", "○○점 받았는데", "정말 나도 너랑 별로 차이 없는데 내 점수가 더 낮네?". 과제점수가 발표되고 나면 학생들 사이에 흔히 오고가는 대화이다. 과제를 제출하고 난 뒤 돌아오는 것은 점수뿐이라서 서로의 점수를 두고 논란이 된다. 과연 나의 과제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우리 학교는 올해 처음으로 39대 총학생회(회장=정형주·통계4)가 '리포트 빨간 펜 침식제도'를 이과대학의 화학과와 물리학과에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총학생회의 요구를 들은 교수 중에도 개인의 사정 때문에 침식지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교수가 있다. 우리 학교에 개설된 대부분의 수업에서 과제 침식지도를 받는 학생은 드물다.

### 경원대, 과제돌려받기 운동 성공적

지난해 경원대 법정대학에서는 이미 과제돌려받기 운동을 진행했다. 학생들이 수업과 관련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함으로 가장 일상적인 리포트를 돌려받는 것부터 시작했다. 교수들에게 과제를 돌려줄 것을 요청해 법정대학의 전체 교수가 참여하도록 이끌어냈다.

학기말에 이뤄진 리포트를 돌려받는 것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의 70~80%가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반면에 교수들은 리포트 침식을 하는데 여러모로 어려운 환경이라서 부담스러워 했다.

올해에도 다음 학기부터 과제돌려받기 운동을 할 예정이다. 경원대 사회과학대학 황순섭(도시행정4) 학생회장은 "한 학기에 4개의 독후감을 쓰는 교양세미나 과목에서 교수님들에게 침식지도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강좌는 수강생이 15~20명이라서 교수님이 침식하는 데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면서 "수강인원이 적은과목을 시작으로 과제를 돌려주는 문화를 정착시켜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07-2학기 전과(전공변경) 안내

- 전과 신청 자격** : 현재 2학기~ 5학기인 재학생  
\* 휴학생, 편입생, 전과 이력이 있는 학생, 수시모집 불교계추천전형 불교학부 입학생은 전과 신청 불가능
- 학과별 전과 가능인원, 전형기준, 일시, 장소**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전과 일정**  
가. 신청 기간 : 2007. 5. 21(월) ~ 5. 23(수)  
나. 전형 일시(구술, 실기, 기타) : 2007. 6. 21(목)  
다. 합격자 발표 : 2007. 7. 20(금)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생 개별 조회)  
라. 학적변동일  
(1) DRIMS : 2007. 8. 1(수) (\*2학기 수강신청 시작일 : 8. 16(목) 예정)  
(2) 학적부 : 2007. 9. 1(토) (\*2학기 개시일)
- 제출서류**  
가. 전과(전공변경)신청원 1부 (양식: 학교홈페이지-서울캠퍼스-학사/생활-양식함-전공-No.5)  
나. 학업이수계획서 2부 (양식: 학교홈페이지-서울캠퍼스-학사/생활-양식함-전공-No.4)  
다. 성적증명서 2부
- 제출처** : 전인 희망 학과(전공) 소속 대학 학사운영실
- 유의사항 및 기타**  
가. 전과한 학생은 전입한 학과(전공)에서 정한 교양과목, 대학(학과) 지정과목, 전공과목, 졸업논문(시험), 외국어시험 등 졸업요건을 모두 이수·충족하여야 함  
나. 전과하기 이전에 진출한 학과(전공)를 복수전공과목으로 신청할 수 있음  
다. 취득교과목 이수구분(전공, 복수전공, 자유선택 등)을 전입학과 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라. 이수중인 복수전공으로 전과한 경우에는 『복수전공포기원-양식: 학교홈페이지』를 소속 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 (제출기한: 2007. 9. 10(월))
- 문의** : 전인 희망 학과(전공) 소속 대학 학사운영실

학사지원본부

## 제25회 춘계 명찰순례참가자 모집

만물이 소생하는 이 즈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격연마와 정서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춘계 명찰순례를 시행하오니 재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순례일자 : 2007. 6. 1(금) ~ 6. 2(토) 1박 2일
- 순례사찰 : 경남 합천군 해인사
- 참가대상 및 인원 : 재학생 중 40명(선착순 접수)
- 참가비 : 일금 일만원(W10,000)(환불 불가)  
\*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 증정
- 신청자 접수기간 : 2007. 5. 22(화) ~ 5. 29(월)  
\* 선착순 접수이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순례 일정

일 자	시 간	내 용
2007년 6월 1일 (금)	16:00	학교 출발
	19:00	저녁식사
	21:00	해인사 도착
	21:00 ~ 22:00	입제식 및 자기소개
2007년 6월 2일 (토)	22:00 ~ 22:30	방 배정
	22:30 ~ 03:00	취침 또는 정근(108배)
	03:00	기상 및 세번
	03:30 ~ 05:00	아침예불 및 참선
	06:00 ~ 07:00	아침공양
	07:00 ~ 08:00	휴식, 사찰주변 정리
	08:00 ~ 09:00	주지스님 법어
	09:00 ~ 11:00	사찰 주변 산책
	11:00	회 향(해인사 출발)
	13:00	점심식사
16:00	서울 도착	

7. 접수 및 문의 : . 학생서비스팀(본관 3층 : 교내 3043)

학사지원본부

## 6월 독서토론 프로그램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의 교양역량을 강화하는 물론 독서태도를 고취하고 대학 내 성숙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6월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독서토론 프로그램이란** : 학생(대학원생 포함)들과 독서 토론을 원하는 도서를 신청받아 교수(강사 포함)가 진행자가 되어 학생들과 토론을 자유롭게 하는 프로그램임.
- 일 정**  
가. 일 시 : 6월 1일(금) 오후 3시~5시  
나. 장 소 : 중앙도서관 사회과학실(지하층) 특수자료실  
다. 진 행 : 중어중문학과 김양수 교수  
라. 선정도서 : 오, 나의 잉글리쉬 보이 / 왕강, 푸른눈 2006  
마. 정 원 : 11명
- 신청방법**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ongguk.edu/) <도서관광장> 내 (이용자교육) 코너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토론 도서 관련 동아리의 단체신청과 중복신청도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신청도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독서토론 신청 후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차후 중앙도서관 독서증진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될 수도 있다.  
\* 토론에 성실히 참여한 학생들에게 도서상품권(1만원)이 지급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02-2260-86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 영어Pass제 대체강좌 공고

개설취지 및 목적	1. 졸업인증 미 취득자에 대해 보충학습 기회 제공 2. 강좌는 졸업인증 Pass제의 취지에 합당하게 구성되며 출결 및 성적이 엄격히 관리됨.
강좌구성	강좌명 : 2007년 상반기 졸업 Pass제 대체강좌 수업기간 : 2007년 7월 2일(월)~2007년 7월 11일(수) 총 8일 강의시간 : 9:00 ~ 4:00 (12:00~1:00는 점심시간) 총 48시간 강의내용 : TOEIC LC+RC/청취 강화/ Reading Voca / 비즈니스 영어 강의실 : 추후공고
수강자격 및 조건	1. 2007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영어Pass제 미통과자 및 수료자 2. 영어공인인증시험(TOEIC, TOEFL, TEPS) 및 외국어 교육센터 Pass제 모의토익 시험 2회 이상 응시 경험 있는 자
총점산출	출석률 60% + 성적 40%
Pass 기준	1. 총점70점 이상일 경우 Pass 2. 2회 이상 결석 혹은 시험 미응수는 점수와 관계없이 재적 3. Pass의 경우 영어 졸업인증자격을 취득한것으로 처리
접수일자	6월 22일(금) ~ 6월 28일(목)
접수장소	혜화관 1층 English Clinic
준비물	신청서, 사진 2장, 신분증, 시험응시증명서류
수강신청	1. 수강신청서 작성, 과제 영어시험 증명자료와 같이 접수 후 2. 온라인 입금 : 신한은행 / 계좌번호 140-006-754830 / 예금주 : 동국대학교 외국어교육센터
수강료	200,000원 (과제 별도)
문의사항	2260-3468, 3470

국제화추진단 외국어교육센터

2007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결과

# ‘신입생’ 그들을 말한다

## 흥미·적성 고려해 학과 선택 ... 공부에 대한 부담 커

2007년 우리학교 신입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지난 3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학생상담센터에서 실시한 '2007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신입생들의 의식을 알아보았다. 설문대상은 재학생 명부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확률적으로 추출된 549명의 신입생이고 오차율은 ±3.8%이다

편집자

서울에 거주하는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으로 한 달에 핸드폰요금 2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내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2007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학교 07학번 신입생들 대다수가 나타나는 특징이다. 우리학교 07학번 신입생 중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이 가장 많고(33.3%),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이 대다수(89.8%)를 이뤘다.

학생상담센터(센터장=조상식·교육학)에서 우리학교 07학번 신입생 549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실시한 '2007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결과'를 통해 신입생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자.

### “공부에 대한 고민이 커요”

고등학교 때나 대학에 와서나 학생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바로 '공부'. 특히 고등학교 수업과 대학교 강의는 진행방식이나 내용에 많은 차이가 있어 갓 입학한 학생들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설문결과에서도 입학 후에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에 대해 학교공부에 관한 걱정거리가 가장 크다고 나타났고, 입학 후에 가장 알고 싶은 것도 '학과에 대한 정보'라고 답변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

이를 살펴볼 때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학과에 대한 커리큘럼과 학과 강의 공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신입생들이 보다 빨리 대학강의에 적응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오르는 비싼 등록금의 부담도 신입생을 고민스럽게 하는 부분이다. 공부에 이어 '등록금조달'이 고민스럽다고 대답한 학생도 23.5%로 나타났다.

대학생이 고등학생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전공과목 이외에도 듣고 싶은 교양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입생들은 가장 듣고 싶은 교양으로 '어학'을 꼽았고 그 뒤를 이어 17.5%의 학생들이 '예술' 분야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듣고 싶은 교양과목을 통해 알 수 있었다.

### 학과 선택은 어떻게?

입시준비를 할 때 학교와 학과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소모적인 노력을 줄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임은 분명하다. 신입생들의 학과결정시기를 살펴보면 03때 결정했다는 학생이 34.8%를 차지한다. 또 26.8%에 달하는 학생들이 원서를 작성할 때 학과를 결정했다고 말한다.

사실상 원서를 쓰면서도 학과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리 학과를 선택하고 과를 결정하면 좋겠지만 능수공부를 비롯한 입시준비에 매달리다보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과를 결정할 때는 흥미와 적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만 취업전망을 고려하는 학생들도 24.4%의 비율로 대학에 입학하기 전 고등학생 때부터 취업에 대한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과에 대한 사전지식과 진로지식은 '그저 그렇다'라는 대답이 각각 41.7%, 40.3%로 학과 홈페이지 등의 정보를 통해 대략적인 정보만을 알고 있었다.

### 학교 만족도 '약간 만족'

신입생들이 느끼는 우리학교의 이미지는 어떻게?

학교나 학교의 이미지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은 어렵다. 또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과 학교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이미지는 다를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신입생들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다. 학과 만족도와 학교 만족도에서 '약간만족'이라고 대답한 학생은 각각 55.6%, 61.7%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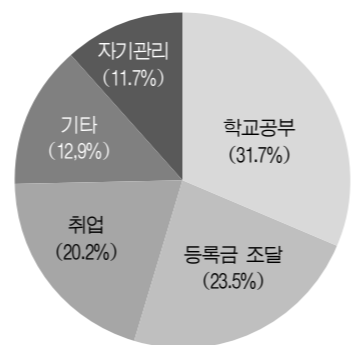
학과와 학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은 스스로의 노력을, 학교 측은 '고객만족'을 위한 계획들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학교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한 물음에서는 58.8%의 학생들이 우리학교가 '중상'의 위치에 있다고 대답했다.

### 취업준비는 3학년년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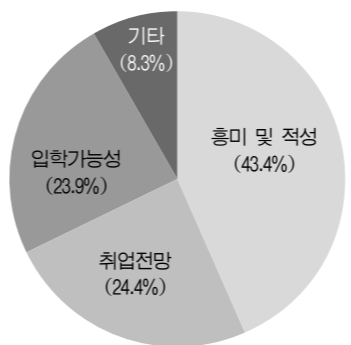
신입생이라고 취업에 대한 고민과 준비에 예외일수는 없다. 학과를 선택할 때부터 진로와 취업을 고려하고 상담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적절한 취업준비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3학년'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42.1%를 차지했다. 취업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인지 취업지원센터 존재를 인지하고 있는 학생은 28.8%에 불과해 많은 학생들이 존재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반면 취업지원센터 직업안내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학생은 59.4%로 비교적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입생들을 위해 상시 진로지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학내에 어떤 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스스로 찾아보는 노력과, 신입생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홍보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취업프로그램의 참여도와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미혜 기자  
limisonaral@dongguk.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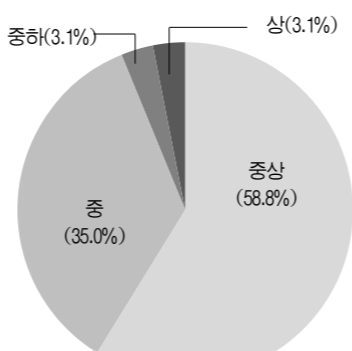
#### ◎ 입학 후 걱정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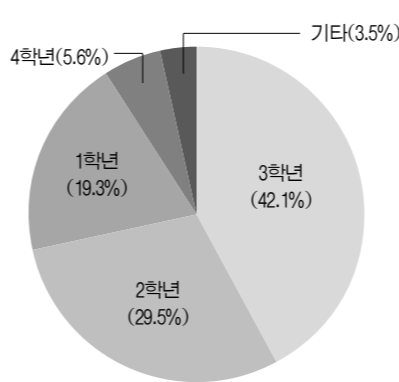
#### ◎ 학과결정 시 고려사항



#### ◎ 우리학교 사회적 평가 수준



#### ◎ 적절한 취업준비 시기



## 동국이의 하루

저녁식사  
및  
공부

취침

기상  
및  
준비

학교

PM 7:00  
집으로 돌아와 저녁식사를 한 후, 컴퓨터 앞에 앉는다. 얼마 전부터 인터넷으로 Toek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1시간동안 강의를 듣고, 인터넷을 좀 하다가 보니 시간은 어느덧 11시. 내일 다시 학교를 가야하기에 등록이는 씻고 잠자리에 든다.

AM 7:30  
'따르르릉'  
알람소리에 잠을 깨니 시계는 벌써 7시 반을 가리키고 있다. 과제를 오늘 새벽에서야 끝냈기 때문에 평균 수면 시간인 6시간도 채우지 못하고, 눈만 붙였다 일어난 동국이는 잠을 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애써 참는다.

AM 8:20  
서둘러서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역으로 가 사람들로 가득한 의정부역 전철을 탔다. 전철안에서 사람들 틈에 이리 치고 저리 치이면서 40분을 버텨 간신히 총무로실에 도착했다. 강의가 시작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7분. 역에서부터 강의가 있는 학림관까지 서둘러서 올라가야 한다.

AM 9:00  
간신히 자각을 면하고, 자리를 잡고 앉는다. 강의가 시작되고, 강의가 시작된 지 얼마 후 9시 수업이라 주변에는 한 두명 조는 학생이 눈에 띄기 시작하고 잠이온이 동국에게도 전해져 온다. '남 3학년이야. 졸 때가 아니야 정신차려' 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지만, 밀려오는 잠 앞에서는 주문도 통하지 않는다. 꾸벅꾸벅 고개를 떨구길 몇 번, 다시 정신을 차리고 수업을 듣는다.

PM 12:00  
점심때가 되어 동기들과 함께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학교 식당에 도착했다. 앞에 앉은 얼굴들이 웃으면서 동국에게 다가온다. 07학번 후배들이다. 자연스럽게 동국과 후배들은 한 무리가 되어 밥을 먹고, 밥값은 결국 동국이의 지갑에서 나간다. 1달에 30만원의 용돈은 후배들 밥값과 교재비, 술값 대는 걸로도 충분해 버쩍다.

PM 6:00  
오후 수업도 모두 끝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웬지 그냥 돌아가기가 섭섭해 동기들에게 술 한잔 하자고 권하지만, 동기의 수영이는 영어회화 학원으로 가야하고, 정준이는 아르바이트를 가야한다며 서둘러 가버린다. 동기들로부터 하루의 피곤함을 털어줄 술 한잔의 여유도 갖지 못한 채, 동국이도 쓸쓸히 집으로 돌아온다.

## 강의, 과제, 공부로 꽉 찬 하루 생활패턴 05년 06년 큰 변화 없어

잡자는 시간과 학교에 있는 시간. 우리학교 학생들의 하루 생활패턴은 대부분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6년도 재학생 시간활용 조사'를 통해 나타난 것으로, 우리학교 재학생들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이다.

이 설문조사는 '통계조사방법론 및 실습' 수업의 일환으로 통계학과 김선웅 교수의 지도로 진행된 표본조사이다. 이 조사는 2005년에 처음 실시된 이후 2006년 이 두번째이다. 조사는 지난 해 11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10일간 우리학교 재학생 62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06년도 재학생 시간활용조사 결과는 지난 2005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공통적인 부분이 많았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1일 수면시간은 2005, 2006년 결과 모두 '6시간 이상 7시간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통학 시간 역시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이 가장 많이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외에도 하루 동안의 예측, 복습시간 역시 '여의안함'과 '1시간 미만'에 가장 많은 비중의 학생이 답했다. 이렇듯 시간 활용에 대한 각 항목조사 결과가 공통적으로 나온 것은 2년간 학생들의 생활패턴

이 크게 바뀌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대학원 진학여부에 관해 2005년에는 4학년 학생만 대상으로 조사했던 것에서 2006년 설문조사에서는 범위를 넓혀 3학년 학생도 포함했다. 그 결과 4학년 학생의 경우 '대학원에 진학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학생이 12.7%, '진학하지 않겠다'에는 87.3%가 답했다.

3학년 학생의 경우 '대학원에 진학하겠다'고 답한 학생이 25.5%, '진학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학생은 74.4%였다. 우리학교 3, 4학년 학생들은 대학원 진학보다 취업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들 사이에서 '취업과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 요즘, 외국어 공부도 취업과 흥미를 위한 필수코스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학교 학생들은 외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2006년 설문조사에는 외국어 학원수강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는데 응답자의 84.6%가 외국어학원에서 수강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독학이나 학교 특강을 통해 외국어 공부에 도움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 108 프로젝트

신경영상시스템 창출, 교육-연구시스템 혁신, 최첨단의 교육-연구환경 구축, 재정확충 및 건전화, 의학교육 및 병원경영 혁신 등 5대분야 108과제의 혁신을 통해 5개분야의 국내최고, 3개분야의 세계최고 목표를 달성하여 내부구성원과 외부고객이 감동하는 World Wide Dongguk을 구현하려는 프로그램입니다.

# 새백년 새동국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

2007년, World Wide Dongguk으로 가는 새로운 백년의 원년!  
5개분야 국내 최고, 3개분야 세계 최고!  
새로운 동국에서 펼쳐지는 108 프로젝트의 작고 큰 결실의 감동을 함께 하십시오.



## 동국대학교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2007학년도 후기

<p><b>일반대학원</b> gs.dongguk.edu 0212260-886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집과정 :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학과간협동과정</li> <li>원서접수 : 5.23(수) ~ 6.1(금)</li> <li>전형일 : 6.16(토)</li> </ul>	<p><b>영상대학원</b> dic.dongguk.edu 0212260-376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콘텐츠학과, 영화영상학과, 멀티미디어학과</li> <li>원서접수 : 5.21(월)~5.25(금)</li> <li>전형일 : 6.1(금)~6.2(토)</li> </ul>	<p><b>경영전문대학원(MBA)</b> mba.dongguk.edu 0212260-8884~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eneral MBA(주간/야간/주말), CO-MBA(야간)</li> <li>원서접수 : 5.18(금)~5.30(수)</li> <li>전형일 : 6.2(토) 14:00</li> </ul>
<p><b>불교대학원(야간)</b> gsbs.dongguk.edu 0212260-3096~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교학개(불교학, 선학, 문화재학과, 불교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호스피스, 생사의례학과)</li> <li>원서접수 : 5.21(월)~5.31(목)</li> <li>전형일 : 6.8(금) 17:00</li> </ul>	<p><b>행정대학원(야간)</b> gsps.dongguk.edu 0212260-310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학과, 인보·복합학과, 공인행정학과, 복지행정학과</li> <li>원서접수 : 5.21(월)~5.26(금)</li> <li>전형일 : 6.9(토) 14:00 (*개통대 : 6.12(화) 19:00)</li> </ul>	<p><b>교육대학원(야간)</b> gsedu.dongguk.edu 0212260-311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학과(교육행정, 상담심리, 유아교육), 교과교육학과</li> <li>원서접수 : 5.21(월)~5.25(금)</li> <li>전형일 : 6.2(토) 14:00</li> </ul>
<p><b>언론정보산업대학원(야간)</b> gscl.dongguk.edu 0212260-3733~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 인쇄출판학과(출판편집전공, 인쇄화상전공)</li> <li>원서접수 : 5.28(월)~6.12(화)</li> <li>전형일 : 6.16(토) 10:00</li> </ul>	<p><b>문화예술대학원(야간)</b> gsca.dongguk.edu 0212260-3606~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예창작학과, 공연영상예술학과, 불교예술문화학과, 예술경영학과, 예술치료학과</li> <li>원서접수 : 5.28(월)~6.5(화)</li> <li>전형일 : 6.9(토) 10:00</li> </ul>	<p><b>국제정보대학원(야간)</b> gsiat.dongguk.edu 0212260-3733~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보호학과, 영어영문·번역학과, IT-Business학과</li> <li>원서접수 : 5.28(월)~6.13(수)</li> <li>전형일 : 6.16(토) 10:00</li> </ul>
<p><b>불교문화대학원(경주)</b> www.dongguk.ac.kr 0541770-2393~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교학개(불교학, 선학), 불교예술학개(국악, 불교미술), 장례문화학과, 불교상담학과</li> <li>원서접수 : 6.11(월)~6.22(금)</li> <li>전형일 : 6.23(토) 14:00</li> </ul>	<p><b>사회과학대학원(경주)</b> www.dongguk.ac.kr 0541770-2093~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학과(정책개발, 지방자치), 경영학과(경영, 사무관리), 법학과, 국제관계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찰행정학과(신설), 사회체육학과</li> <li>원서접수 : 6.4(월)~6.15(금)</li> <li>전형일 : 6.16(토) 14:00</li> </ul>	

봄 농활 체험기



# 혼잡한 도시 떠나 4일간 농부되다



어서 먹는 사람들을 고생시키기도 했지만,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들을 보며 고마움과 뿌듯함을 느꼈다. 둘째 날부터 근로노동이 시작되었다. 밭고르기, 고추심기, 비닐하우스 만들기 등... 기계화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아직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대부분이었다. 우리는 처음 하는 일이라 그런지 땀이 비오듯 흐르고 금방 지쳤는데, 그분들은 정말 능숙했다.

근로노동 후에는 아직도 협상중인 FTA에 관한 강의를 듣고 우리의 의견을 말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쌀 개방에 관한 부분이 제외되었지만, 아직도 여러 문제들이 있어 농민들은 분개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셋째 날, 농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 잔치가 벌어졌다. 돼지머리 대신 귀엽게 돼지저금통을 놓고 올해의 풍년을 기원했다. 막걸리 한 잔과 함께 서로의 사는 이야기를 했고 그에 따라 분위기는 한층 더 무르익어갔다.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다음날 우리가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아쉬워 했다.

이 동네의 아이들은 중학생이 가장 큰 아이였고, 청·장년층이라는 분들은 대부분 65세 이상이었다. 농촌의 고령화 현실을 직접 볼 수 있었다.

마지막 날은 호별 방문을 통해 대에 계신 어른들께 각각 인사를 드렸는데, 며칠 되진 않았지만 그세 정이 많이 들어 우는 할머니도 계셨다. 우리는 각자 생활로 돌아가 다시 바쁘게 생활하겠지만, 그분들은 그동안 우리가 있었던 자리를 크게 느끼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김교도 짧았던 농촌활동을 체험하면서 내 자신과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일이 힘들고 내가 그동안 쉽게 살았다고 생각했었을까? '시간을 흐리부지 보내지 말고 무언가 할 때에 최선을 다하자'라

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일상과는 다른 경험을 통해 과거의 삶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인생목표를 새로 설정하였다.

농활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그 힘든 농활을 왜 가냐, 왜 사서 고생을 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학생살을 하면서 농활이라는 것은 꼭 경험해볼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힘든 것, 어려운 것을 점점 피하고 싶어하는 요즘 우리들이 인생의 새로운 참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아주 좋은 계기이다.

이지선(사과대 사회2)



## 열린글터

독자여러분의 글과 사진을 기다립니다.  
동대신문은 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독자여러분의 직접 찍은 사진이나 만화, 만평, 4대 분량의 글 등을 게재합니다. 채택된 글에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dgupress.com E-mail dgupress@dongda.ac.kr  
TEL : 2269-3461-2 FAX : 2279-1270

### 경기보러 가는 건 어때요?

이렇게 화창한 날에는 어디론가 소풍을 가고 싶어진다. 소풍을 야구장이나 축구장으로 가는 건 어떨까? 야구나 축구를 잘 모르더라도 가서 보면 함께 즐길 수 있고,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나는 박지성의 팬이었는데 박지성이 맨유에 들어가면서부터 유럽 축구에 매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즐겨 찾아다녔다. 지난 달 맨유와 AC밀란의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 경기를 보았을 때, 맨유가 3:0으로 완패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실망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후 밀라노를 찾은 맨유 원정 서포터

들은 기립박수로써 아쉬움을 뒤로 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아낌없이 칭찬해주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런 모습이 경기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경기가 끝나고 나면 선수들은 상대 선수들과 격려하고, 관중들은 일어나서 박수를 쳐준다.

축구를 좋아하게 된 것은 선수들과 관중들의 모습에서 정말 즐길 줄 아는 그런 모습 때문인 것 같다.

우리나라는 유럽 선진 축구와 달리 국가대표 경기에 더 열의를 가지고, K리그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리그도 선진축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수준별 리그를 운영하여 승강제를 도입하는 과정을 통해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뿐만 아니라 각 구단들이 재미있는 축구를 하려 하고, 최근에 서울 수원의 큰 관심을 받는 경기는 5만 5천명이 넘는 최고 관중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다. 제도적 변화, 구단과 선수들, 그리고 관중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더 재미있는 경기, 가치 있는 경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경기를 하고, 관중은 그에 상응하는 태도로 선수들과 함께 한다면 그 속에서 경기를 한 층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안은지(공과대 전기공3)

### 취업만을 위한 대학생활 벗어나야

학교에 들어와 맞는 3번째 여름. 후텁지근한 기운이 스밀스밀 느껴질 때마다 또 1년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3학년이 되어 맞는 여름은 다른 때보다 유난히 더운 듯하다.

어느덧 5월이 되어 왠지 낯익은 축제가 열리고 있지만 마음 한켠이 무겁다. 3학년이라는 학년은 나를 무겁게 짓누른다. 이른 걱정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독여보지만 졸업에 한층 가까워졌다는 사실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 이것저것 생각하다보니 땅거미가 내려앉는다.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도서관엔 사람이 참 많다. 문득 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일어 주위를 훑어본다. 책상에는 토익이며 각종 시험 대비 문제집들이 어지러이 펼쳐져 있다.

요즘 대학생들은 취업준비를 위해서 신입생 때부터 자격증 따기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이런 학교까지 밟고 학생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시키기 위한 공부를 시킨다고 한다. 결과가 중요하나 뭐라나.

자격증을 위해 공부하는 대학생들. 정해진 목표. 취업만을 위한 4년간의 대학생활. 문득 나의 대학생활을 떠올려 본다. 정신없이 밀려오는 다양한 경험들은 하나로 정해져 있던 내 꿈을 마구 흔들어 놓았고 나를 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로 속에 데려다 놓

았다. 미래가 불투명한 것 같아 불안할 때도 있다. 하지만 정해지지 않았기에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다. 여러 가지 꿈을 꾸며 경험했던 일들은 990. 토익 점수보다 소중한 것이다. 결과도 좋고 효율성도 좋다. 끝내준다 여겨지는 일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는 말? 물론 좋은 말이다.

하지만 쓸데없지만 여기서 말고 후에 어떤 자양분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학교는 학교이지 학원이 아니며 취업은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닌 인생의 시작점일 뿐이다.

취업을 하고 대학생활을 돌아보았을 때 미소가 떠오를 수 있는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싱겁게 빛나는 여름의 동양처럼.

최진경(문과대 국문3)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 무엇보다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 중요

제1444호 동대신문은 학생들을 위해 학교 측에서 제공하는 복지시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학기 초부터 불어졌던 등록금 인상액에 대해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차이에 복지시설이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어 유익함과 함께 들뜬 중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신입생들에게는 이전과 다른 생활에 대해, 졸업생들에게는 취업준비에 관한 상담이 이뤄지고 있는 상담센터와 관련 타학교에 비해 부족한 시설을 인식하게 하고, 학교 측의 지원을 요구하는 기사, 여학생 수 증가에 따른 여학생들을 위한 복지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기사 또한 유익했다.

특히 학업관 공간 재구성에 관한 소식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 정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나온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언론에서 아무리 학교 측에 복지공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상담센터의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고, 총여학생회에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추진력을 높여야 한다고 학생들을 위해 더 나은 복지시설을 요구하더라도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면 이러한 것들이 다 부질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복지시설을 활용하는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학생들의 참여율은 미미하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학교 측의 노력들이 모두 우리학교 학생들을 위한 것이므로 추진하는 모든 것의 주체인 학생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그 참여한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는 학교 또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곽규령(이과대 수학1)



독자 사진첩

The girl who lost the smile

하지만, 내 머릿속의 한면에서 영원히 미소짓고 있는 소녀

음성유(공과대 건축2)

### 달하나 천강에



고영섭 불교대학 불교학과 교수

우리는 인생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이다. 나는 내 인생의 전부를 책임지는 총감독이자 주연배우이다.

나의 깨달음은 오직 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부다조차도 내 대신 깨달아 주지 못한다. 전생을 마감한 내 업식(業識)은 49일(7×7)을 기약하고 떠돌

###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자

고 있었다.

때마침 선관계를 맺고 있는 어느 커플 중의 한 여인이 임신중이었다. 나는 내 업식에 맞는 향기를 찾아 여인의 자궁 속으로 들어갔다. 열 달가량 양수 속을 헤엄치던 나는 금생이라는 새로운 무대에 올랐다. 이처럼 나는 전생의 내 의지에 의해 현재의 부모를 선택했다.

금생에서 아직 의지가 미숙했던 나는 부모의 도움으로 유치원을 거쳐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그러는 사이 내 의지는 점점 성숙되어져 갔다. 5-6학년이 되자 나는 모든 일을 스스로 판단하고 싶어 했다. 해서 집 근처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자의로 진학했다. 나는 부모의 도움을 받고 그분들의 조언과 의사를 수용해서 판단했다.

이즈음부터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과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자각이 내게 생겨났다. 더 이상 나는

부모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이제 부모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다. 그분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도 죽어줄 수도 없었다. 나는 부모가 나를 낳아준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최근 '헬리콥터형 부모'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자녀 주변을 맴돌며 헬리콥터 프로펠러처럼 간섭을 멈추지 않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학의 학사 일정과 수업 과제를 및 진로 결정에서조차도 부모의 뜻에 의존하는 엑스트라 학생들이 다수라고 들린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입사지원서를 낼 때마다 상의한다. 또 고시 준비를 적극 강요해 공부하게 한다. 채용관련 문의조차 부모가 직접 하고, 부모의 반대로 입사를 포기하기도 한다. 면접 때 동행하고, 입사기업을 정해주고,

면접을 보게 하는 것까지 결정하고 있다 한다.

사자는 갓 낳은 자기 새끼들을 절벽 아래로 밀쳐버린다. 그런 뒤에 되돌아온 새끼들만 기른다. 자립심이 강한 사람은 부모의 경제적 그늘에서 안주하는 '갹거루족'이 되려 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부모는 진로와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돕는 '컨설턴트형 부모'가 될지연정 과도하게 관심 갖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이생의 첫 데뷔 무대에서부터 내 인생의 주연은 나였다. 본디 무대 위에서 배우는 고독한 것이다. 그 고독을 이겨내고 무대를 즐길 때 비로소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것이다. 부모나 친척이나 친구 등등은 내 관객일 뿐이다.

그들은 나의 고독을 무너뜨려 줄 청중이자 팬들이다. 우리 모두 '주인공'으로 다시 서자.

### 편의와 친목도모 위한 노력 필요

학교에 와서 수업 받을 때까지 다리가 너무 아프다. 특히 아침 9시에 와서 그 높은 언덕까지 올라가서 또 건물 5층까지 올라가서 수업 받으면 이미 기진맥진 돼서 수업 받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다.

학교 내에 엘리베이터라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한 두번이 아니다. 문제는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의 사람들

도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다. 모든 건물에는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자주 쓰는 건물에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예를 들면 학업관 같은 경우는 후문에서 들어와서 경사진 언덕으로 올라가 계단으로 올라도 1층부터 다시 5층까지 가야 하는 수업이 많은데, 이럴 때 정말 고충을 많이 겪는다. 원충관은 바로 위의 언덕을 오르면 4층부터 시작 되서

괜찮지만 학업관 같은 경우는 정말 오르기가 힘들다.

그 외 바라는 점은 싸이클럽에 동국 대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클럽이 개설되어 있는데, 이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을 하는 바람이다. 솔직히 같은 학교에 다니지만 서로 다른 과라는 벽에 가려져서 같은 학생이라는 인식이 없는데, 학생들 간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이를 장려했으면 좋겠다.

김기현(영성미디어학부 게임멀티미디어공1)

###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원 향
월	부대찌개 (2000) 제육비빔밥 (2000) 닭도리탕 (2000)	햄순두부찌개 (2000) 얼무비빔밥 (2000) 간풍기 (2000)	된장찌개 (3200) 독배기불고기 (3800) 자반구이 (3500)	북어계란국 (2500) 철판오삼불고기 (2900) 순만두국 (2500)
화	반계탕 (2500) 참치회덮밥 (2000) 돈육고구마김정 (2000)	갈비탕 (2500) 제육콩나물덮밥 (2000) 콩치킨김치조림 (2000)	된장찌개 (3200) 초밥우동 (3800) 닭갈비볶음 (3500)	매운콩나물국 (2300) 철판김치볶음밥 (2900) 마파두부덮밥 (2500)
수	쇠고기국밥 (2000) 참치김치볶음밥 (2000) 갈비김치떡볶이 (2000)	순만두국 (2000) 돈삼겹두루치기덮밥 (2000) 해물굴소스덮밥 (2000)	된장찌개 (3200) 낙지볶음밥 (3800) 떡갈비찜 (3800)	쇠고기무국 (2500) 순살돈가스정식 (2900) 얼무김치비빔밥 (2500)
목			부 처 남 오 신 날	
금	돈갈비김치찌개 (2000) 치즈돈가스 (2500) 닭갈비볶음밥 (2000)	감자탕 (2000) 날치갈비치볶음밥 (2000) 불고기생이채비빔밥 (2000)	된장찌개 (3200) 참치전골 (3500) 쇠고기볶음밥 (3500)	닭볶음 (2500) 철판제육두루치기 (2900) 순두부찌개 (3500)

# 연구실, 학교 차원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5월이 되면서 중간고사가 끝나고, 학구적이었던 캠퍼스에는 부처님오신날을 비롯한 각종 학교행사로 온 동국인들의 북적임으로 활기를 찾기 시작한다. 새로운 100년을 시작한 캠퍼스는 생동감이 넘치고, 바라보는 이들까지도 생기를 갖게 한다. 그러나, 안전사고의 발생은 이렇게 활기있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갑자기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은 각자의 학교생활과 학업에만 열중하며 살고 있지만, 정작 본인 주변에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에 대하여 무관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논단**  
조훈영  
학생경력개발원장  
이과대학 물리학과 교수

## 안심할 수 없는 사고위험

본 필자는 아침에 출근하면 우선 마음을 조아린다. 아침 일찍 캠퍼스는 조용하고 정각원의 타종 소리는 만물을 깨우지만 혹시 어제 밤에 무슨 일이 없었는지 혹시 철야 연구를 한 대학원생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 건물을 들어와 경비실 분위기를 보고 학생들 얼굴을 보면 그때서야 안심이 된다. 현재 우리학교 제도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책임은 그 실험실 책임자인 교수에게 있다. 학교는 도의적인 책임만 짚으면 될 것이다. 물론 집에 있으면서도 실험실에서 대학원생에게 급한 연락이 오면 항상 긴장하며, 학생들이 실험실에 있는 한 언제나 비상대기상태이다.

지난 1999년 9월 서울대 플라즈마 연구 폭발화재로 학생연구원 3명이 사망했으며, 2003년 5월 한국과학기술원 풍동 실험실 폭발사고로 학생 1명이 사망하고, 2005년 1월 SK연구소 폭발사고로 6명이 부상당했으며, 2005년 7월 경산대 에테르 폭발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나는 등 우리들 머릿속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실험실 안전사고는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연구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각종 독성 화학물질이나 폭발성 가스, 그리고 치명적인 바이러스나 유전자가 재조합된 미생물 방출은 대학 사회 전체 및 학이 위치한 지역사회와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다.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무거운 물건을 이동하면서 또는 건물 설치물에 의한 신체손상과 같은 보고되지 않는 사고는 헤아릴 수 없다

## 열악한 실험실 관리실태

우리대학의 실험실 안전관리상황은 안전장치나 안전교육차원에서 열악하다고 생각한다. 실험실의 모든 안전관리는 미숙한 학생들의 손에 의해 관리되며, 바쁜 교수들에 의해 감독된다. 상황이 급해서 올해 새로 나온 학교부서 연락처를 살펴 봐도 실험실 안전담당자가 없고 총괄지원팀이 실험실 안전전담을 대신하고 있다. 외부에서 우리대학의 실험실을 방문할 경우 부끄러울 뿐이다. 그대도 지인이 방문할 경우 안전관리에 관하여 한소리 썩 들곤 한다. 예전에 모 학교에서 프랑스의 기업에서 구입한 연구장비를 수리해야 할 일이 생겨서 그들을 불렀는데, 그들의 장비가 실험내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험실 내부로 들어가길 거부한 일이 기억이 난다. 물론 혹자는 그런 위험한 일을 왜 하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그러나 생각을 바꿔 보면 아파트의 건물은 누가 지으며, 한강다리엔 누가 놓으며, 국가부채를 어떻게 갚으며, 수출할 물건들을 누가 만들며, 국가의 생존이 달려있는 생산적인 분야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 또한 성수대교가 무너지면, 삼풍과 같은 백화점이 내려앉으면 그 책임을 설계자와 공사 관계자에게만 미룰 것인가?

## 전문적인 안전관리 실시 필요

그러나, 연구실환경조성법이 2004년 국회를 통과한 후 2005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우리대학도 몇 년 전부터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심을 보여왔다. 그러나 안전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핑계로 형식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대처한 것은 사실이다. 현재 우리대학도 노후한 건물들을 개보수하며,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단장에 학교가 점점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모든 건물에는 보안장치가 설치되고 체계적인 보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공대 연구실과 실험실들을 리모델링할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하드웨어적 확충에는 반드시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이다. 학교차원의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실험실 안전규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모든 동국인에게 형식적이 아닌 전문적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위험물을 취급하는 연구실이나 사무실에는 이러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만 출입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새로 설치된 보안장치를 활용해야 한다.

## 전 구성원이 안전의식 가져야

안전관리는 안전 업무 담당자만의 업무가 아니다. 안전담당자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의 의식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고 구성원 모두가 안전의식을 생활화해야만 확보될 수 있다. 모든 구성원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문화를 만들어야만 확보될 수 있다. 모든 구성원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소중한 우리들과 우리 대학을 안전지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가치관을 견지하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사고와 생활을 개혁하고, 의례히 그러려니 하고 살아왔던 생각에서 벗어나는 의식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안전하고 편안한 캠퍼스 생활은 우리의 바람이고 또한 우리의 의무이다. 대학에서의 이러한 안전의식교육은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더 큰 국가 재량을 방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길일 것이다.

# 메아리

## 경선 불복 40년

▲ '각서'의 사전적 의미=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 우리는 어떤 약속을 할 때 농담조로 "의심 가면 각서 써!"라고 흔히들 말한다. 그러나 각서는 지키지 않는다면 그저 종이쪽지일 뿐 그 자체로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때문에 소송이나 채권채무관계의 증거 역할이라도 부여하길 원한다면 공증을 받는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의 약속도 마찬가지로이다. 정치가들의 정치적 신념과 지조, 그리고 변절한 규제할 방법이 없다. 각서로써 묶어 놓을 수 없다.

▲ '李vs朴' 경선은 12월 19일 진행된 제17대 대통령 선거 그 자체보다 더욱 흥미진진한 '결승전'이 될 것 같다. 박근혜, 이명박 두 후보의 일거수일투족과 발언들에 매일 지지율은 춤을 추고, 불꽃 튀는 전초전이 열리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두 후보에게 경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고 나섰다. 한나라당 박관용 경선관리위원장은 경선관리위원회 5개 방침 중 후보들이 위원회 결정을 완벽히 따르게 하겠다는 다짐을 일순위로 꼽았다. 각 후보 캠프에서도 "후보가 한나라당으로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경선 결과를 따를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대선 지지율 1, 2위를 달리는 두 후보가 한 정당에서 한 명의 대선승리를 이끌어 내도록 힘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터. 따라서 경선 불복과 탈당 시나리오 등 당

내 우려도 적지 않다.

▲ 우리나라는 지난 71년 이래, 치열하다고 꼽히는 정당내 경선에서 깨끗하게 승복하는 후보의 모습을 보기 힘들었다. 1987년 대통령직선제로 개헌한 이후 첫 대선에서 김영삼, 김대중 두 후보는 경선을 치르지도 못하고 각자 출마해 모두 패배했다.

1992년 민자당 경선에서는 이종찬 후보가 경선 직전 거부선언을 하고 탈당했다. 1997년 독자출마와 2002년 민주당 탈당으로 경선 결과에 두 번 불복했던 이인제 후보는 대선 역사에서 기회주의와 그 실패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다. 그리고 올해, 대한민국 정치 40여년과 함께한 경선 불복의 역사는 이어질 것인가.

▲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두 후보 중

어느 한명이라도 당을 벗어나는 순간 지지율이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일단 한나라당 후보로 등록하면 탈당한 뒤 독자출마할 수 없다는 바뀐 선거법상 확실치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1971년 신민당 경선에서 패배한 김영삼 후보의 김대중 후보 지지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경선에서 떨어질 경우 당의 안녕을 위해 나서겠다고 하는 지지활동이 오히려 후보를 깎아먹게 된다면 그것 역시 경선 불복이 될 것이다.

물론 한나라당 외의 다른 당 역시 마찬가지이다. 올해에는 정당과 국민들이 원하는 '아름다운 경선'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이주현 대학부장  
niitake@dongguk.edu

# 사설

## 총학, 학생들의 신뢰 얻는 기구 돼야

3일여에 걸친 대동제도 끝났다. 축제기간 동안의 함성은 그쳤지만, 여전히 캠퍼스 안은 시끄럽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먼저 학제개편과 구조조정안과 관련해 현재까지 구성원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해당 학과의 반발시위에 이어 해당학과 교수는 언론매체 인터뷰를 통해 '법적소송'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측은 5월 중으로 학과개편에 대한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까지 학생대표로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총학생회가 이번 학제개편과 관련해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총학생회는 얼마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학제개편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학제개편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알아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학교 측에 제시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보이는 활동'을 해야 학생들로부터의 신뢰와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보이는 활동'은 점거와 투쟁을 뜻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총학생회의 활동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활동이다.

교육환경개선 시행에도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오는 2학기에 1학기 등록금 중 1.5%가 하향 조정돼 학생들에게 일정부분 환불될 예정이다. 하향조정된 부분 중 0.5%는 T-money의 형식으로 환불되고, 나머지 1%는 총학생회의 의견을 반영해 학생복지개선사업에 활용된다고 한다. 학생들이 등록금 환불액이 복지환경개선사업으로 활용되는 것에 의심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학생들로부터 복지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와 의견을 수렴해 복지환경개선사업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해 공개해 학생들로부터 등록금 환불을 환경개선 사업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한다.

어느덧 오는 30일이면 1학기의 4/5일이다. 이제 곧 1학기가 마무리 되고, 총학생회의 1학기동안 활동도 마무리가 된다. 1학기 동안 총학생회가 다양한 활동을 펼쳤지만 이에 대해 학생들은 과연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음학기에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동시에 현재보다 총학생회의 활동과 인지에 있어 학생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려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총학생회가 직접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동국만평

이주현 niitake@dongguk.edu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오영교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편집인 겸 주간 윤재웅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편집장 강지혜 구독문의: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성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 응급상황, 이럴땐 어떻게?? - ④ 뱀에 물렸을때

## 입으로 독을 빨지 말아야

우리나라에는 독성이 강한 뱀으로 살모사, 까치독사, 불독사 등이 있으며 뱀에 물렸을 경우에 일단 뱀이 있는 곳에서 떨어뜨려야 한다. 뱀은 한번 이상 무는 습성이 있으며 머리가 잘린 후에도 20분 이상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머리가 잘린 경우라도 조심해야 한다.

**\* 독사에 물렸을 경우 다음과 같은 증세를 보인다.**

1. 물린자리가 심하게 화끈거림
2. 1cm정도 간격의 물린 상처(하얀 띠가 있을 수 있음) - 무독성뱀일 경우 말발굽모양으로 한줄의 이빨자국
3. 5분이내 물린부위에 부종
4. 변색, 피가 차 있는 수포(물린지 6~10시간에 발생)
5. 심하면 메스꺼움, 구토, 발한, 혀악감이 동반된다.

**\* 응급처치법**

1. 부상자를 안심시키고 물린 곳

자료제공 = 보건소

## 보리소

### 일곱 부처님의 공통된 가르침

경전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 외에도 과거에 이미 여섯 분의 부처님이 계셨음을 알 수 있다. 과거칠불이라 불리는 이 일곱 부처님은 한결같이, "모든 악은 저지르지 말고,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이것이 곧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공통된 가르침 '칠불통계'를 설하고 있다. 따라서 칠불통계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불교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 계송의 내용은 얼핏 보면 지극히 평범한 가르침인 것 같지만, 자세히 음미해 보면 불교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악을 경계하고 선을 권장하는 것이야 일반적인 도덕이나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로인데 뭐 그리 특별한 게 있느냐고 반문할 사람이 있을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自淨其意)'는 구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거기에는 불교의 미묘한 사상적 입장이 깃들여 있고, 선악에 대한 불교의 독특한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박경준  
불교대학 불교학과 교수

## 졸업요건 영어PASS제

### 모의토익(5월26일) 시행

영어PASS제는 졸업요건으로서, 해당 학생들은 대학/학과의 지정된 영어 점수를 졸업 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국제화추진단 외국어교육센터에서는 정규시험(TOEIC, TOEFL, TEPS) 이외의 패스 취득기회 확대를 위해서 PASS제 모의 토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접수: 5. 21 (월) ~ 5. 23(수) 24:00까지 (인터넷접수)
2. 입급: 5. 21 (월) ~ 5. 23(수) 24:00까지
3. 접수증 출력기간: 5. 25(금) ~ 5. 28(토)
4. 취소 및 응시료 환불 수 없습니다.
5. 방법: 동국대학교 홈페이지-재학생서비스- 외국어PASS제- 영어패스시험 신청- 응시료 입금 - 접수증 출력
6. 시험: 2007. 5. 26(토) 10:00 ~ 12:30 해화관 2층 강의실
7. 대상: 영어PASS제 미취득자
8. 응시료: 5,000원
9. 입급마감일: 2007. 5. 23 (수) 24:00까지 (미입급시 취소) 입급계약: 신청번호 140-007-481766 (예금주: 동국대학교 외국어센터)
10. 주의사항: 해당마감일까지 반드시 입급하시기 바랍니다. (\* 입급시 본인인름 표기: 예, 홍길동 2025123)
11.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접수증, 연필(샤프)
12. 문의: 국제화추진단 외국어교육센터 (해화관 1층, 2260-3468, 3470)
13. 시험 주의사항: 가. 9시 30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10:00 이후는 절대 입실 불가. 나. 신분증, 접수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입실할 수 없습니다. 다.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시험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 국제화추진단 외국어교육센터



명강의 수기와 발표에 사용된 제품 이미지

### 명강의 공모전에 선정된 박준영(산업시스템공학) 교수와 황현철(산시공4) 군 인터뷰

# “이론과 실무는 결국 하나입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주최한 명강의 공모전에 선정된 '제품개발 및 정보관리' 강좌의 박준영(산업시스템공학, 이하 박) 교수와 황현철(산시공4, 이하 황) 군을 만났다. 지난학기 학생들이 개발한 제품들을 손수 보여주며 뿌듯해하는 박준영 교수는 "학생이 직접 추천해서 명강의 공모전에 선정된 것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교수와 황현철 군에게 지난 2학기 처음 개설된 '제품개발 및 정보관리' 강좌의 수업 과정과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에 대해 들어보았다.

- 평소 강의철학에 대해 말한다면.

박 = 교수가 된지 올해로 15년째인데,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강의의 틀고 나서 그 과목에 흥미를 잃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강의를 할 때 더욱 흥미를 가지고 그 분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하는 데 힘쓴다. 학생들이 기대에 부응해서 잘 따라와 줄 때 큰 보람을 느낀다. 또 '제품개발 및 정보관리' 강좌와 다른 과목을 연계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강좌 개설 취지는.

박 = 외국에서는 제품개발과 관련한 강의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던 반면 우리나라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개설하게 되었다. 이 강좌는 컴퓨터 이용 설계인 캐드(CAD)와 컴퓨터 이용 제조기인 캠(CAM)을 함께 아우를 수 있다. 외국교재를 사용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사례가 부족한 부분은 학생들이 직접 찾아 발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또 최근에는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정보를 필요에 따라 가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실무적인 능력이 요구된다. 학생들에게 이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해서 수업에 직접 참여시키는 팀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결과물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

- 팀프로젝트의 진행 방식은.

박 = 한 달이라는 시간을 부여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처음에는 팀별로 주제를 발표하면서 학생들이 준비해 가는 과정을 점검하고, 학생들이 차근차근 꾸준히 준비할 수 있도록 2주를 남겨두고 중간발표를 했다. 팀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모두 실험실습비로 처리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황 = 우리 조는 빔을 쏠 수 있는 핸드폰을 구상했는데 말하자면 빔프로젝터와 핸드폰을 결합시킨 것이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이미 누군가가 아이디어로 내놓았던 것이라 허탈했지만 핸드폰의 디자인을 변형시키고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했다. 다행히도 같은 조에 서양학과 전공 학생들이 있어서 만족스러운 디자인 스케치를 했고, 캐드전공을 수강한 학생 덕분에 동영상으로 제작이 가능했다. 제품이 너무 고가여서 직접 만들지는 못하고, 문서를 통해 발표하였다. 발표 전에는 조원들과 함께 밤을 꼬박 새워 발표를 준비했다. 팀원들과 함께 하면서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었지만 시간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미있었고 큰 보람을 느꼈다.

- 이 강좌를 듣고 싶은 학생들에게.

박 = 학생들이 막연하게 강좌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배경지식의 필요성에 대해 물어오는 경우가 많다. 사실 반드시 배경지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미리 겁을 먹고 기회를 놓쳐버리기도하는 도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으면 한다.

황 = 강좌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무적인 것을 접할 수 있다. 또 수업에 관련된 동영상이나 세미나를 보는 등 여러 가지 교수법이 동원된다. 결과적으로 강의에 기울인 노력 이상으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수업이다. 현재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튜터링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다음학기에는 이 강좌의 튜터를 맡아 조언을 해줄 계획이다.

-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이 있다면.

박 = 상당수의 학생들이 취업에 대해 학점관리를 하느라 공부에만 관심을 쏟는데, 시야를 넓혀서 학창시절에 풍부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다. 또 개인주의 때문에 옆 사람을 동료로 생각하지 않고 경쟁자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옳지 못한 태도인 것 같다. 마지막으로 평소 내일을 위해 오늘을 참는다는 사고방식을 갖기보다는 오늘이 가장 가치있다는 마음가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황 = 흔히 대학에 입학 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생은 취업을 하기 위해 대학을 다니는데 그 긴 시간동안 눈 앞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해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4학년이 되고 보니 놓친 게 많다는 생각이 아쉽고, 가능한 다양한 경험을 쌓으라고 말하고 싶다.

<현>

hyunewh@dongguk.edu



## 인물동정

한진수 부총장  
홍조근정훈장 수상



우리학교 한진수(회계학) 부총장이 지난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진행된 2006 행정자치부 혁신 유공공무원·유공인사 포상행사에서 '홍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다. 이는 지난해 정부혁신관리평가단 분과위원장을 맡아 정부혁신정책과 확산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은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분야별 우수 및 도약 기관으로 선정된 9개 기관 공무원과 외부인사 등 51명이 수상했다.

## 교수동정

△손인수(전자공학)=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일본 교토에 국제 표준회의 발표를 위해 참석.  
△조호영(물리학)=지난 1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프랑스 마르세유에 ICSI(International Conference on Silicon Epitaxy and Hetero structures) 국제학회 논문 발표위해 출국.  
△이금석(컴퓨터공학)=지난 1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진행되는 ISO/IEC JTC1/SC7(System and Software Engineering) 국제 표준회의 총회에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 위해 출국.  
△임중주(생명화학공학)=다음달 22일부터 7월 1까지 81st Colloid and Surface Science 학회 참석 및 논문발표를 위해 델라웨어와 Columbia 대학교 Somasundaran교수 방문 및 공동연구 협의를 위해 뉴욕 방문.

## 만나고 싶은 동국인 - 뮤지컬 배우 조정은(연극영화어졸) 동문

# “사랑하는 일에 대한 열정을 놓치지 마세요”



“처음에는 앙상블이었지만 단지 무대 위에서 선배들과 함께 선다는 것만으로도 설레었죠.”  
극단에 들어갔던 당시를 회상하는 그녀는 더 이상 앙상블이 아닌 관객을 압도하는 주연이며 이번에는 뮤지컬 '스피카이어 그림'의 종업원 펠시가 되어 나타났다. 무대에서 희망을 주문받고 관객에게 노래와 연기로 대접하는 뮤지컬 배우 조정은(연극영화 07졸) 동문을 만났다.

조 동문이 말하는 뮤지컬의 매력은 음악과 드라마가 함께 어우러진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이야기를 말로써 전달하지만 뮤지컬은 말과 노래와 춤을 총 동원해 의사소통 한다는 것. 혹시 영화나 드라마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나

는 물음에 일반 관객이나 시청자의 눈으로 보는 편이 더 좋으며 웃는 그녀는 직접 관객을 만나는 뮤지컬에 더 애정이 간다고 말한다. 특히 뮤지컬이 연극은 한 달에서 두 달간 하나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출인' 해야 하는데, 이 점이 자신과 맞는 것 같다고.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어 힘들 일이 없다는 그녀는 뮤지컬을 하고 싶은 후배들에게 '열정'과 '책임'을 강조했다. "누구나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 열정은 정말 뜨거울 수 있지만, '열정을 책임지고 끝까지 가져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한다. 또 항상 자신이 주인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본인이 뮤지컬이 하고 싶은 것인지 주인공을 하고 싶은 것인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만약 순수하게 뮤지컬을 하고 싶다는 결론을 얻는다면 상대적으로 힘들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교에서 뮤지컬 강의 요청이 들어온다면 응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풀어내었다. 그녀가 입학할 당시만 해도 뮤지컬이라는 장르는 관심이 적었던 터라 함께 공감하고 배워나갈 친구나 선생님을 필요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뮤지컬을 생생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해 항상 아쉬웠고, 후배들에게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꼭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주기에는 부족해 공부를 더 해야 한다며 식지 않는 학구열도 보여주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지만 영국이나 미국 등지에서 뮤지컬을 배울 수 있는 학교를 알아보고 있다는 그녀는 뮤지컬이 시작된 영국에서 그 나라의 문화도 알아가고 싶다고 한다.

늘어난 뮤지컬배우 지방생 숫자가 보여주듯이 갑

자기 커진 뮤지컬 시장에 대해 그녀는 뮤지컬을 하는 회사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수가 늘었지만 질도 함께 높아진 것 같으며 현재 한국 뮤지컬의 상황은 '과도기'라고 말한다. 하지만 쇼 뮤지컬이 대세를 이루면 뮤지컬 시장이 휴먼드라마 같은 장르도 다루기 시작하면서 콘텐츠가 풍부해지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지금의 거품이 빠지고 나면 안정적인 기반이 형성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아쉬움이란 열정을 가지게 해주고 에너지를 만들어 준다"고 말하는 그녀는 현재의 모습에서 부족한 점을 채워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처럼 정말 원하는 일을 찾아 자신의 일을 즐기고 사랑한다면 '인생'이라는 무대 위의 스포트라이트는 항상 자신을 향해 비춰지고 있을 것이다.

문서영 기자  
syooob@dongguk.edu

## 사회교육원 여름방학 특강 개설

### 아동미술심리지도사 여름방학 특강 안내

미술치론, 매체를 경험하며 직업과정에서 내면과 무의식을 탐색하고 내면적 갈등을 스스로 치유해가는 과정입니다. 아동의 미술적 심리발달을 연구하여 나이가서는 노년기까지의 전 인간의 문체적 갈등을 예방, 치유하며 자각중도 준비합니다.

교육기간 : 2007년 7월 4일 ~ 8월 30일 (7.5주, 45시간)  
강의시간 : 초급반 수요일 10:00 ~ 16:40  
중급반 토요일 10:00 ~ 16:40  
\* 초급반, 중급반 동시 수강 가능합니다.

수강료 : 과목당 300,000원

특기 사항 :  
- 18시간 이수 후 동국대학교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 아동미술심리지도사 자격검정시험 응시자격 부여

자격취득요건 :  
1. 본 과정 180시간 이수자로 자격기본법 18주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전문대학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접수기간 : 2007. 6. 1(금) ~ 6. 29(금) 09:00 ~ 17:00  
접수처 : 사회교육원 학사운영실  
접수방법 : 계좌입금  
(신한) 계좌번호 313-03-004148 동국대학교  
문의처 : 2260 ~ 3730 / 3729

### 주산활용수학교육사 여름방학 특강 안내

교육목표 : 놀이학습도구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주산을 활용하여 유아, 초등학생들에게 기초수학을 지도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사들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교육기간 : 2007년 7월 2일 ~ 8월 30일 (7.5주, 45시간)  
강의시간 : 기초반 주중반 월, 수요일 10:00 ~ 12:50  
중급반 토 10:00 ~ 16:50  
심화반 주중반 화, 목요일 10:00 ~ 12:50

수강료 : 300,000원

특기사항 : 90시간 이수 후 동국대학교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 주산활용수학교육사 자격검정시험 응시자격 부여

자격취득요건 : 1. 본 과정 90시간 이수자로 자격기본법 18주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접수기간 : 2007. 6. 1(금) ~ 6. 29(금) 09:00 ~ 17:00  
접수처 : 사회교육원 학사운영실  
접수방법 : 계좌입금  
(신한) 계좌번호 313-03-004148 동국대학교  
문의처 : 2260 ~ 3730 / 3729

### 여름방학 특강 돈 벌어주는 펀드 펀드 펀드!!!

개강 : 2007. 6. 20 (수) 15:00 ~ 17:00(6주강의)

강사 : 오윤관  
(메리츠증권남성투자팀 FC, 금융자산관리사, 증권투자상담사, 신용평가상담사, 펀드, '절망'과 '절망'의 밭 지자)



접수기간 : 2007. 6. 1(금) ~ 6. 15(금)  
수강료 : 100,000  
접수처 : 사회교육원 학사운영실  
대상자 : 일반인, 대학생, 교직원

### 커리큘럼

강의일자	강의 제목	주요 강의 내용
1강 6월 20일	펀드투자의 이해	저축과 투자의 차이 돈을 벌여주는 마법의 힘 - 복리 왜 펀드 투자를 해야 하는가?
2강 6월 27일	펀드 기초 다지기 1	펀드의 구조 및 특성 펀드의 종류 및 구분
3강 7월 4일	펀드 기초 다지기 2	스타일 박스의 이해 시장 국면별 펀드 성과의 차이
4강 7월 11일	펀드투자로 목돈 만들기	왜 적립식으로 펀드를 투자하는가? 적립식 펀드투자의 이점과 특성
5강 7월 18일	펀드투자로 목돈 굴리기	거저서 투자 프로세스 이해 핵심펀드와 전략펀드의 차이
6강 7월 25일	실전 펀드투자 테크닉	대안펀드의 종류 및 특징 저축에서 투자로 넘어가는 전략펀드론 - FID 해부 실전 펀드투자에 필요한 기초지식 다지기

접수기간 : 2007. 6. 1(금) ~ 6. 29(금) (단, 돈이되는 펀드,펀드,펀드는 6월 15일 마감)

접수방법 : 계좌이체 | 신한 140-002-017211 동국대학교

카드수납 : 사회교육원 학사운영실

대상자 : 일반인, 대학생, 교직원

문의처 : 2260-3730/3729

사회교육원 홈페이지 : <http://edufile.dongguk.edu>